朝鮮日報
夕刊 八日(土)
朝鮮日報社

虐殺事件을契機로 獨、미島保障占領?

爆擊機二十八臺와操縱士武器彈藥等 多數搭載한獨艦이叛軍根據地로向發

西班牙內亂遂國際化

히틀러獨逸總統

【倫敦七日發同盟】바르셀로나市近郊의 獨逸人虐殺事件을 契機로 獨逸政府와 西班牙人民戰線內閣과의 關係는 極度로 緊迫化하야 獨逸政府는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行한 抗議에 關하야 滿足을 엇기까지 斷然 마조르카島保障占領을 行할것이 아닌가고 報道되고잇다 또 七日 데일리·헤랄드紙는 獨逸 東阿社船 우사라모號(七、七七五噸)가 爆擊機二十八臺及 操縱士、機關士와 武器彈藥等 多數를 搭載하고 西班牙叛軍總司令프랑코將軍의 根據地세우타港으로 向하엿다고 報道하야 小型主力艦도이췌란드號 事件直後의 일이라 倫敦外交界에 一大衝動을 與하엿다 獨西兩國關係의 緊迫化는 他方 佛蘇對伊太利關係와 關聯하야 따라서 歐洲全局에 擴大할 可能性이 잇서 事態는 益益 樂觀을 不許하는바가 잇다

獨、西叛軍密約說

佛蘇兩國에絶對的威脅

【哈爾濱發】旣報 再報된 西班牙叛亂에 對해서는 歐洲各國이 모다 全神經을 集中하야 注目하고잇는데 特히 일즉 擡頭한左翼人民戰線派의 崩壞가 팟쇼의 獎勵에 壞滅될與否의 分岐點에 잇서서 蘇聯及 佛國 이에 對한 獨逸及伊太利의 焦燥相은 其極에 達하야 西班牙叛亂을 中心으로 歐洲의 共産主義及 팟쇼의 二大潮流는 뒤누리를 치며 激突하야 各國의 데마가 亂飛하고잇는데 哈府라디오는 突然 英紙「뉴-크로니클」의 特報라고 獨逸及 西班牙叛軍과의 軍事密約의 締結을 報道하야 多大한센세이숀을 捲起하고잇다 即 佛國政府에서오는情報에 依하면 獨逸政府는 이前에 戰死한 西班牙叛亂軍산후르호將軍과의 사이에 軍事的密約을 締結하야 歐洲에 戰爭이 勃發한境遇에 西班牙는 同國브레알스기島及 마오네海軍根據地를 獨逸에 提供하고 共同하야 阿弗利加로부터 大國에 進出하려는 佛國植民地派遣을 阻止하러함에잇다 그리고 右密約說에 對해서는 波蘭情報通信社 獨逸特派員도 西班牙의 팟시스트叛亂軍의 勝利로 完全히 佛國을 팟쇼諸國에依하야 包圍하야 南은 西班牙 北은獨逸 東은 伊太利로 하려는것으로 萬若이것이 實現되면 東歐의 팟쇼連繫도 急速히實現할터로 蘇聯及 佛國에對해서는 最大의 脅威라고 論하고잇다

叛軍所屬巡洋艦 히혼市를猛攻擊

【앙데-南佛-七日發同盟】叛軍所屬巡洋艦 세베라號는 七日西班牙北方의 要港 히홍市에對하야 猛烈한 爆擊을加하야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同市政府軍首腦部는 세베라號에 對하야 爆擊을 中止치안는境遇에는 斷乎叛軍捕虜二千五百名을 銃殺한다는旨를 警告하야 세베라號의 砲火를 避하기爲하야 苦肉策을 取하엿다고傳한다

叛亂軍軍艦에서 英驅逐艦砲擊

所屬不明의機佛軍艦도爆擊 事態는去益惡化

【지브랄타르七日發同盟】佛國汽船 루베-잔號(三一五二噸)는 알제港을出發하야 안달스港으로向하는途中 七日午前十一時지브랄타르海를 떠난 五哩의 海上에서 所屬不明의 飛行機一臺로부터 三回에 亘하야 爆擊을 바덧다 爆彈은 同船의 周圍二百米突以內에 投下되엇스나 多幸히 命中치안핫다 同船船長은 卽時 附近航海中인 各船舶에 對하야 無電으로써 警報를 發하엿다

【지브랄타르七日發同盟】西班牙叛亂軍所屬 軍艦은 七日六回에 亘하야 英國驅逐艦 바려리號에 砲擊을 加하엿다 砲彈은 命中치안핫스나 英國東洋艦隊司令官은 叛亂軍司令官 프랑코將軍에게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고 今後 지브랄타르附近에서 交戰치 안토록 警告하엿다 一方 西班牙政府에 對해서도同樣으로 左의警告를 發하엿다 英國政府는 지브랄타르附近에 ...

西班牙叛亂과列國態度

【哈爾濱發】西班牙叛亂은 全歐洲의 國民戰線과 人民戰線의 運命을 掌握한것으로 進展에 關하야 全世界의 視聽이 集中되고잇는데 最近 歐洲各國의 人民戰線派의 擡頭는 第七回코민테른大會에서 議決된「팟시즘의 脅威에 對하기爲하야 各國人民戰線이 協力하야 이勢力擴張에 援助할것」이란 코민테른活動工作의 一部成功이라고도보이므로 따라서 西班牙動亂에 對해서는 赤色코민테른으로서는 到底히 傍觀할수업는것으로 八月一日의 反戰데-를 契機로 依然 西班牙人民戰線派支持의 旗幟를 鮮明히하고 軍閥打倒 西班牙民衆支持의 大衆데모를 擧行하엿는데 다시 昨日의 哈府라디오新報에 依하면 莫斯科 울조니키-제工場勞働者는 西班牙勞働者에게 如左한 激勵文을 發送하엿다

我等은 西班牙와 全世界勞働者에게 戰爭의 煽動者 팟시즘과의 鬪爭으로서 新하다 西班牙勞働者여 兄弟은 一人이 아니다 我等과함께잇다 云云

또그들은 大衆데모에 參加하야 西班牙人民戰線派援助의 義捐金募集을 行하얏다고 報道되엇다

卽蘇聯은 方今西班牙叛亂에 對한 干涉에 進出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佛國이나 英國이 이事實에 對하야 現在無關心的態度를 가지고잇는것을 注目하지안흐면 안되다 卽佛英은 西班牙動亂에 對하야 嚴正中立을 標榜하고各國에도 이를要求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

獨伊兩國에對해 英佛提携의推勢

伊機모록코不時着엔英佛이干涉하고

蘇、西政府援助는默認

【倫敦發】西班牙 모로코에서 새로徵募된 伊太利飛行機가 出現한때에 佛國은伊太利의 干涉을云云하얏는데 莫斯科干涉에 對해서는 沈默하고잇다 이事實은歐洲政情의 推移를 暗示하는것이라고안 볼수업다 蘇聯은 如斯한行動에 對해서는 獨伊는 反對的行動을 取할것이다 西班牙動亂은 國民主義와 인터낫쇼날鬪爭의 端緒이라 그어느편이 敗北하는것으로써 歐洲政情은 조곰이나 언잔호나 新形勢를 밟을것으로 보인다 西班牙人民戰線派가 勝利를 占하는것은 結局 歐洲의코민테른의 活動이 强化되는것이오 ...

프랑코將軍 本土에進出

【라바트七日發同盟】叛亂軍司令官프랑코將軍은本土叛軍督勵次根據地테투안市를出發하야七日午後세빌리아市에到着하엿다고傳한다

葡領마데이라島에 暴動勃發

【리스봉七日發同盟】葡萄牙政府發表에 依하면 七日 大西洋上의 葡萄牙領마데이라島에暴動이 勃發하야 死傷者多數를 내엇다 政府는 곳 軍艦二隻에 機關銃部隊一個中隊를分乘시켜 마데이라島에 急派하엿다 一方 飛行部隊도 이에 協力하야 治安回復에 ...

獨伊作戰結成次

伊外相伯林訪問

大戰勃發은不可避!

【羅馬七日發同盟】獨西關係가 가장 險惡化한이때에 伊太利政府는 國際팟시스트 戰線强化의 立場에서 드듸어獨逸政府와의 共同作戰結成을 決意하고 外相차노伯은 ... 近近 伯林에 出馬하리라고한다 一方伊太利政府의 ... 佛、西兩社會主義 政權、蘇聯의 共産主義政權에 對하야 ...

佛緊急閣議

【巴里七日發同盟】佛國政府는西班牙內亂의 重大化에 七日午後 ...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

一、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에對하야 依然 嚴正中立不干涉의 ...

一、佛國政府는 그提案인 不干涉協約案에 對해서는 今後各國政府와의사이에 交涉을 進行하야 同協約案의 成立에努力할것

潛水艦도窒息할 小型驅逐艦出現

英、伊海軍의新威力

中央에서對廣西 大强壓戰策決定

中央、廣西兩軍 開戰切迫

西國政府軍艦隊派遣 발레아리諸島奪還次

【마드리드七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叛軍手中에 잇는 발레아리諸島를 奪還하기爲하야 驅逐艦七隻、潛水艦三隻、爆擊機十一台、商船改裝艇一隻에將兵四千七百名을실어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同艦隊는 八日 발레아리諸島를向하야 出發할 豫定이다

第七回日滿經濟 共同委員會開會

【新京六日發同盟】關東軍發表 日滿經濟共同委員會第七回 會議는 七日午前十時부터 軍司令部에서開催하고

一、貿易緊急統制에 關한件
二、滿洲石油株式會社擴資에 關한件의 二案에 關하야 審議한結果 全部異議업시 可決 하얏다

不干涉提案白國受諾

佛의不干涉原案骨子

不干涉原案에英難色

葡萄牙는修正案提出

兩軍軍艦 아海外에서海戰

에塊駐劄스公使 塊外務省에辭任通告

人事·集會

▲宇垣一成大將 十一日午後三時京城驛發退京
▲今井田淸德氏(前政務總監)退官人事次八日來社
▲池田政銀氏(前總監秘書官)同上
▲矢野義男氏(前秘書官)十一日午後三時京城驛發退京
▲大野謙一氏(總督府學務課長)洋行次十一日午後三時京城驛發神戶에
▲兒島咸北知事 十一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發赴任
▲大竹十郞氏(內務局長)八日午後三時京城驛發新總督總監出迎次渡東
▲永田直昌氏(總督府司計課長)洋行中九日午後三時十分京城驛着歸任

八面鋒

◇事實收益四百萬圓增收를 目的으로 煙草의販賣價格을 올릴計畫。
◇正面의大衆課稅를 避하라는 手段이지는모르나, 結果에잇서서는 大衆生活의威脅。
◇煙草나 酒類를 無用品 奢侈品이라할지대 그吸飮을嚴禁하는것도 한方法。
◇嗜好品이라는 弱點을 잡아서 負擔을過重히 식힘은 民情을 無視하는財政策。
◇藏相은 敎育延長案을 反對하고 文相은 電力國營案을 反對하고。
◇十日閣議를압두고 廣田內閣의 不統一을 如實히暴露。
◇政界의 二百十日이 갓가워온다는 ...

김질藥은 本オヂリン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은 一回一個服用

改良『동정』新發明
朝鮮衣服界의大福音!
第一! 生活의合理化!
生活中衣服의合理化!
衣服中「동정」의合理化!
特約店募集 發明書進呈 ロイト동정 發賣元 サイワイ商會 釜山府草梁町

ノアピ葉山 家庭用(竪型) 500圓以上 學校用(平台) 1·000圓以上 (全鮮各特約店에有함) カタログ贈呈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電本三四八五)

商標 千 고추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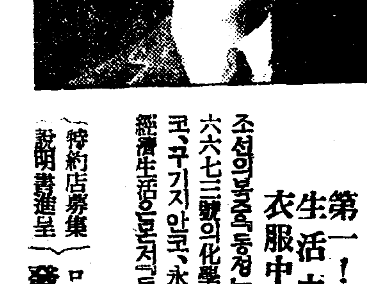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金銀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金銀賣買合資會社 京城南大門通

간질 엔秘方 日光製藥社

パラゴン 純國產 特許十一件 驚異的發明 新發明 原音再生音量豐富 廉價、堅牢、優美 只讚美! 批判の域を越えて No.P-35 ¥38 PARAGON 京城 青木商會 古市町

昔も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ひえ薬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大阪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



靈嶽山門 더럽히는 火藥냄새 硝煙떠끌

"땅버들선 냇바다에 임자업는 저 물방아"

風物과人情은 이한마듸로

茂山서 本社特派員 李相昊 手記

우리가탄렬차는 해발 삼천척노피되는 차유령(車踰嶺)마루터을넘고저 발버둥을 치며 헐덕인다. 바로이마우에 재마루를 처다보고 배암이 개구리를잡아먹을라고 얼리는것처럼 기차는 부질업시바른편으로갓다 외편으로갓다 개아미 쳇바퀴돌듯 그냥그자리를 감돌고잇다。 엽헤안즌"주사"한분의 부리는입심에 따르면 이고개를넘는동안에 가는나무한개가 섬을세번 눈압헤드러낫다 언뎡뒤로줄엇다 한다는말만드러도 그구뷔를짐작하겟지마는 압해보이는 산허리한개를가르치면서 여기서 기차를뚤러 뒤여내려 도보로 산허리를넘어가도 한참기두리고 서잇다가 악가탄든 그기차에 다시뛰여 오를수잇다는 수작이다。 이만해도 등산맛을 훔신보는세음 좌우로 벌려섯산은 밋바닥을 비집어 볼틈도업시 잇갈나무와 잡목으로새벽칠을 하다시피하엿고 기슭에는 산백합(山百合)개나리 산철죽꼿들이 모조를 부어노흔듯이 녀녀하다。 그러케만코 그러케 곱고 그러케 청초하고 그러케 꼿다운들 그얼굴을 자랑할라고도안코 그입홀을 알릴려지도안코 날좀보아달라고 손짓할배업시 나는나요 남은남이란듯이 희고 누르고 붉고 푸른단장으로 시침이를 떼고 서잇는 꼿떨기들, 얼마나고결하며 얼마나 철인적(哲人的)이며 얼마나 도사풍(道士風)인가。 최후의 밟아올하고 재마루를 굴속으로넘은 기차는 때를만낫다고 한다름질로 내려밧는다。 성천수(成川水)내물을 바른편쪽으로 끼울고 무산으로무산으로。

○……○

내바다에는 땅버들이 자욱이 드러선사이에 질펀도하시 벌거버선 물방아가 군데군데 잡바저잇다。 간혹가다가는 임자업는 물방아가 활주에는 무엇이드러잇는지 짐작도 못가것만 혼자 부즈런하게도 오르내리고잇다。 그러치! 이산골이내ㅅ바다에 물방아가잇다하면 아침에 활주에부어온 귀밀을 저녁에 스릇서답아가겟지 방아임자 눈에불을켜고안저 감밧하게도 직히라고。 산천의 체면을보아 그리못하겟거든 인물도순박함에 말은해서 무엇。 땅버들의 내ㅅ바다에 임자업는물방아。 이곳의 풍물과인정은 이한마듸로 다할것이다。 아닌까 이것도 지나가는공소리 건너편산허리에는 구멍을 버리지치렁을따노코 다이나마이트를 장치해잇다 산록에서산가장자리까지 "케-불카"가오르락 내리락 세기(世紀)가 뒤밧구이고 래사가설을 건너간다。 저다이나마이트소리에 이물방아가 견디어날것이며 저"케-불카"오가는 바람에 이절구가 정조를직히라고。 산기슭에 다아부든 황장버러진 안방에는 먼비채도 냄새가다른 분홍저고리가 얼른거리든 상배치마 갈포적삼에 귀밀자즈러운 마을안악네가 맛매고를빼기에 힘찬팔뚝을가젓다한들 모라처드려오는 저밀물을 무엇으로 막아내겟는고。 생각만해도 봉치하고 보기만해도 몸서리치잖。

○……○

그러면 그러치。 건너편마조뵈는 거기는 삼릉(三菱)경영의무산철광(茂山鐵鑛)。 저버리진 가튼 구렁들이 이산을 뒤덥흐며 물방아 멋거럽시 삼켜먹는것이야 누가따를 일이며 저다이나마이트터지는 화약냄새가 이산의풍기를 흐리게하는것이야 누가보살것이며 저봇물결이고리가 이마을안악네에게 구진 설움을 가저다줄것이야 누가막을것인가。 여기는 얼기는하나마 백두령봉의 가장자리。 그산봉의 따뜻갓마당 불뚝리고비질하야 다듬고 씻처두어야할 정결하여야할곳에 먹어드려가든 화약그믐이 여기서나마 공순히도라서스면 다행이겟거니와 공휴차져서 쇠를차저서 서탐하는 저서는 지축(地軸)까지도 놀라보겟다는 저침묵은 천종백수송이 "자본아"(資本兒)의 변풋에 로두산 정치를온몸에 화약고린냄새를 피우지안흐리라고 누가보증할것인가。 생각만해도 공축스런일이 아닌가。 요놈도역시한출속이지! 우리가탄기차는 내리막길을 줄겨라고 기운좋게구비며 닷는곳은 우리가차저온무산역。

元氣旺盛한 本隊員 步武堂堂히 到着

茂山市는白頭山氣分으로充溢

【茂山에서 李特派員發電】 금팔일, 이날은 우리들의본대가 도착하는날이다 아침일죽일어나며 널려되든 전후 플라진키로하나 구름은낫고 칠안개는 산기슭까지 내려품이 흡업시 비가올것가텃다 다소불안을느기고잇섯더니 이는얄가리번하는 이지방의천후라 어느새에 하늘은 씻슨듯이 프르케개이고 긔운은다소내리어 첫가을가튼긔분이다 장도를떠날에알운보대가들어올에 다시업시 축복된날이다 긔자는 여기에서 기다리기로하고 방(方)특파원은 일행을맛기위하야 차령(車嶺)까지 아침도변변히먹지안코 오전십시에 출발하엿다 일행은예정대로 오전십일시사십사분 차창바그로는 본사긔를 날리며 무산역에 들어 다엇다 이십팔명의 일행은 누구나 얼굴에 우슴을머우고 원기왕성하다 이모양이면 백두산도 단숨에달어올라갈듯하다 행장을수습하여가지고 역두에 내리자 처행정의 수사를조봉하는 그럭환영을한후 등산복에로산을 울려머진 용장한자태로 메오를지어 무산시가로 들어가니 이곳주민들은 눈을크게뜨고 놀란듯이 바겨마저준다 시중은 완연 조선일보사 백두산등산대로 눌린덧는듯하다 전원은 세곳려관에각각 행장을풀고 려사적장도의첫날저녁을 치게되엿다 이밤에는 우리의단장 서춘(徐椿)씨가 맛뭇시강연에불구하고 이곳지방인사의 청을저비리지못하여 당지보통학교 강당에서 일장의강연회를 열게되엿는데 백두산등산대의 인끼도 장관이려니와 서단장의 강연인끼가 또한굉장하다 이또한 일행의 길에는금상첨화의 감이잇다

汝矣島入口에서 "택시"水中에侵入

콩크리트橋가물에잠겨서

【永登浦】 칠일오후영시반경 시내도모에나시 경제구천일백일호에 승객이명을 태워가지고 운전수신모(申某)가 운전하야 여의도(汝矣島)비행장서 시내로도라오는길에 연일비가와서 한강의물이 붓는관계상 비행장과신길정(新吉町)을 연락하는 콩크리트다리가 보이지안해서 짐작하고 진행하다가 그만수중에트러박어섯는데 다행히 승객과운전수는 무사하엿다고한다

◇…물속에突進한택시

安奉線또延着 土兵再襲으로

칠일오전려시반경 안동현(安東縣)에서 봉천발(奉天發)부산행(釜山行)제사렬차(京城着午前九時五十分)는 요천둔(遼千屯)역에 의사습격을 당하야 늦게떠낫는데 상세한것은 아직알수업다고한다

待望의九日! 마라손의決勝日

(九日午後十一時正刻에出發(朝鮮時間) 十日午前一時三十分前後하야決勝點에)

孫、南兩雄의 "컨듸슌"은絶好

올림픽의 가장꼿이라는 마라손의 세계제패를 긔약하며 가장 충분한자신을 가지고 방금전지 백림(伯林)에서 대긔중에잇는우리의보배 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량군이 삼십개국대표 오십팔명을 상대로 려전분투할 날은 바로구일날이다 이날오후열한시(조선시간)에 려사적경주의 신호소리와함께『백림올림픽스타디움』을 출발귀착점으로 언덕만흔 난코-스에서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이에대한 예상도구구하지만 올림픽마라손의 예상이 적중한 전례가 업스리만치 과연누가 영예의 패권을 획득할는지 예언조차 어렵다 다만우리는 량용사가 이십륙마일사분지일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항금가튼『컨듸슌』이 지속되기만 비리마지안는다 이날은 오후열한시부터(독일시간오후세시)열두시까지 마라손 출발광경은 감격의 전파로 조선에도 중계방송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십일오전한시삼십분을 전후하야 결승선에 드러올터인데 이는시간관계로 마라손의 실황을 록음(錄音)하엿다가 십일오전 여섯시반부터 일곱시까지 레코-드로 중계방송케되엿다

쏘다지는 이천삼백만의 기대와축망은 하늘가티 클뿐인데 더욱히 양군의모교인 양정고보(養正高普)의 안(安)교장이하교직원과 및생도들은 초조한가삼을부득켜안코 오직래일이 밝기를 고대하고잇다 이제모교양정고보에서는 백림올림픽촌에 진치고잇는양군에게 다음과가튼 격려전보를 타전하야 사기를 진작시키고잇다

『양군이여! 최후의 일각까지 분투하야 영예의 패권을 잡으라』 양정고보교직원일동

母校養正高普에서 兩雄에게激勵電

"最後一刻까지 奮鬪하라" 安校長以下 敎職員一同이

백림의전장(戰場)에서 무지와희망과승부에 가득차서 울기다리고잇는 손기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양군에게

◇伯林에서待機中의마라손選手孫基禎(左)南昇龍(右)兩君

不穩文書臨時取締令 八日부터朝鮮도實施

그內容은日本內地의同法을그대로引用 制令第十三號로써公布

지난제륙십구회의회를 통과한불온문서림시취체법은 일본내지에는 이미륙월십오일부터 공포실시되엇는바 이번에 이것을 조선에도 실시하게되야 총독부경무국에서는 그간준비중이든 조선불온문서림시취체령을 제령제십삼호로 팔일에 공포하야 곳실시키로 되엿다。 법령의 내용은 전긔취체법을 그대로 인용하야 실시하게되므로 특별히 다른점은업다。 이 법령은 소위 문서라는것을 철저히 취체하려는것으로 오직 일본내지에만 괴문서가 횡행할뿐 아니라 조선에도 상당히 횡행한 사례(事例)가 잇다하야 이것의실시를보게된것이다

治安確保를爲하야 怪文書를禁壓排除

◇…田中警務局長談

불온문서 취체령을 조선에도실시함에대하야 전중(田中)경무국장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불온문서 즉소위괴문서가 횡행하면 사회인심에 불안을 주어 치안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 이러한것에 대하야는 철저히 취체를하야 박멸을도모할려이다 괴문서는 조선에서도 그사례(事例)가 적지안흠으로 조선에도 이법령을실시하야 전국적으로 취체를단행하게된것이다』

看護婦自殺(未遂)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간호부의 의문의자살(미수)=시내죽첨정(竹添町)아정목국삼사번지에사는 김경순(金慶順)은 약사년전부터 적십자병원간호부로잇섯는데 확일밤간호부 기숙사안에서 의사들이 마취제로 사용하는『판쓰코·포리민』을 극량(極量)삼배 가량이나 주사하고 혼수상태에빠진것을 동모들이 발견하고 곳응급수당을가한 결과 생명은 건질것가트나 방금중수상태를계속하야 동병원에서 신음하고잇다 전긔 김경순의자살을도모한 원인에관하여서 동병원에서는 절대비밀에 부치나 부령측에서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

봉인이현재 혼수상태에 빠져잇슴으로 자세한 원인은 알수 업습니다 사오일전에 병원으로 부터 해직롭고가 잇슨후 여전히병원에 출입하며 놀고잇다가 그가티 갑작히일을저즐른것인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입니다

公州高普에出火 第一寄宿舍燒失

温突修繕中火口에서發火? 損害는約三千圓가량

【公州支局特電】 팔일오전두시경에 충남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제일호긔숙사에서 발화하야 제일호실로부터 제팔호실에이르기까지 전소하엿다 발화의원인은 온돌을 수선중 온돌아궁지에서 불이난듯하며 손해는 약삼천원가량이라하며 화재보험에 들고안든것은 아직알수업다한다

柳義卓送局 殺人未遂罪로

자긔누의동생에 극보=사랑하는 매부가 장가온지 몃달이 안된 매부가 일개긔생에게 빠저서 헤어날줄모르는데 분개한나머지에 지난이일 매부를 칼로 찔르고 소관종로서에 검거된 유의탁(柳義卓)(二七)에게대하야는 그동안 그서 이뢰(一瀨)경부보담임으로 피해자 김상한(金相漢)과 참고인으로 그의 이종두의 박수련(朴壽蓮) 긔생최옥희(崔玉姬) 신부인 유려혜등을 소환 취조중이더니 드듸여 그취조가 끗나서 팔일오전열시경에 일건서류와함께 살인미수죄로 검사국에 넘기엇다

忠南、全北中心으로 洪水질念慮잇다

비는全域的으로오는中

【仁川測候所發表】 일본서남쪽에 잇는 저긔압이 잇기때문에 전선(全鮮)적으로 비가나리고 잇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두도를 중심하여서는 큰비가 나리는동시 홍수질 염려가잇서 경계중이다

雨期와傳染病期에 不潔飮食店團束

鍾路署衛生係에서一齊臨檢

요사이 지리한장마철을 당하야 시내에는적리(赤痢)등 여러가지 전염병이 창궐하고잇는데 특히 시내각음식점의 불결한 음식물로인하야 그전염이심한점에 착안하야 시내종로서 위생계에서는 불량음식물을 철저히단속키위하야 오는십일부터 계원이총동원하야 그관내에잇는 팔십여곳 음식점과 오십여곳카페-찻집과 또 요리집 선술집 내외주점등모조리검사를할터이라고한다 불량한음식물은물론더러운그릇과 숫갈등은 단연파기처분을 할터이라하며 파리모기를어가게하는 철사고물을 사용케하고 소독저를 쓰지안는곳도 용서업시 처벌할터이라고한다 더욱히 여행상의불결한 점도빼지안코 모조리처벌할터이라고한다

鐵道自殺兩件

◇…①…일혜날 오후열한시평 광주선(光州線)광주―망월(光州―望月)사이 광주긔점 사백사십 『미롱』부근에 열두서살 가량된 소년이 담양(潭陽)을 떠나 광주로가든 구백구십호렬차에 치여서 머리에 중상을 바덧는데 생명이 위태하고。

◇…②…가튼날 오후 여덟시 십오분에는 인천(仁川)을 떠나 서울로오든 사백이십이호렬차가 주안―부평(朱安―富平)사이를 달리여오는중 나이마흔살가량된 사나이가뛰여드러 자살햇는데 그여는누구인지알수업다고

軍官校志望者被捉

지난 일혜날밤 아홉시쯤되여 인천(仁川)부두에서 중국옷을 입은 행동수상한 세소년이 목선을 울잡어타고 상해(上海)로 향해서 떠나려는것을 경계하고잇든 인천서원이 붓잡어가지고 문조한결과 이들은 강원도 춘천(春川)에사는 리영석(李榮碩) 황영태(黃永泰)(一九) 리규창(李圭昌)들로 각각 자긔들의 부모몰래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에 입학을하러 가든길인것이 판명되여서 그서고등계에서 취조중이다

애독

籠球代表軍 中國을擊退

이로써二位獲得無難 35…19

伯林올림픽籠球初日

【伯林올림픽스타디움七日發同盟特派員】 世界올림픽籠球競技는參加國이만허서豫定보다하로를다녀서 七日에올림픽籠球場에서 第一回戰을 擧行한바 우리籠球界의 三勇士廉殷鉉, 李性求, 張利鎭三君이 끼여잇는 籠球代表팀이 强豪中華民國代表팀을 三十五對十九의스코어로 擊破하고 第二回戰에드러갓다 이리하야 압흐로는 決勝戰에 對하야 先進國米國이 잇슬뿐이요 第二位獲得도 無難할것으로 豫想된다

【第一回戰】

		前半	後半		
에스토니아	34	18…16	12…17	29	佛國
智利	30	15…15	11…5	16	土耳其
瑞西	25	17…8	8…10	18	獨逸
加奈陀	24	10…14	10…7	17	브라질
리토아니아	[illegible]0	…11	…11	7	우르과이
秘露	35	18…17	16…6	22	埃及
墨西哥	32	20…12	7…6	13	白耳義
匈牙利	不戰勝				
日本	35	20…15	9…10	19	中國

蹴球敗退 對伊太利戰

【伯林올림픽스타디움七日發同盟】 올림픽蹴球第一戰에 瑞典을이긴 日本代表팀對伊太利의第二回戰은 七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伯林球場에서擧行한바 八對零으로 日本敗退하엿다

伊國 8 (2…0 6…0) 0 日本

【四百米決勝】 1 윌리암스(米)四六秒五 2 부라운(英)四六秒七 3 루비알(米)四六秒八 4 로바-트(英)四六秒八 5 프리츠츠(加)四七秒八 6 로-링그(加)四八秒二

◇四百米繼走豫選=米國十點、英國八點、加奈陀三點

十種競技前半成績

【伯林올림픽스타디움七日發同盟特派員】 十種競技前半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1크라크(米)四、一九七(百米一〇秒九 走幅跳七米六二 投砲丸一二米六八 走高跳一米八〇、四百米五〇秒) ▲2모-리스(米)四、一九二 ▲3빠-카-(米)三、八八八 ▲4뿌랑멘(芬)三、八七三 ▲5알비넨(瑞西)三、七八七 ▲6크-헤(瑞西)三、六六〇 ▲7트라모(芬)三、六九一 ▲8뿌로지(和)三、六五二 ▲9달고렌(瑞西)三、六一三 ▲10휘-바(獨)三、五五三

올림픽陸上 正式順位

【東京電話同盟】 聖火타오르는伯林스타디움에서 熱戰을展開하고잇는 올림픽大會도 第八日의水上競技開幕과함께 後半戰에 드러갓다 지난七日에亘한 陸上競技는 거이十八種目을 이미마치고 四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三千米障碍、十種競技 마라손競走等의 五種目이 남어잇슬뿐이다 그리하야 世界陸上의順位는 大槪다음과가티 決定한바 米國은벌서 十種目에選手權을 獲得하고잇서 依然 世界陸上의 霸者인實錄을 보이고잇는데 七日까지의成績을 綜合한 各國正式順位 及一般慣例에依한 各國得點은 다음과갓다

◇各國正式順位

順位	國名	選手權數	二位	三位
1	米國	10	5	3
2	獨逸	3	2	1
3	芬蘭	2	3	2
4	日本	1	2	2
5	英國	1	2	0
6	新西蘭	1	0	0
7	라토비아	0	2	0
8	伊太利	0	1	2
9	加奈陀	0	1	1
10	和蘭	0	0	2
11	瑞典	0	0	2
12	체코	0	0	1
同	比律賓	0	0	1
同	濠州	0	0	1

◇各國得點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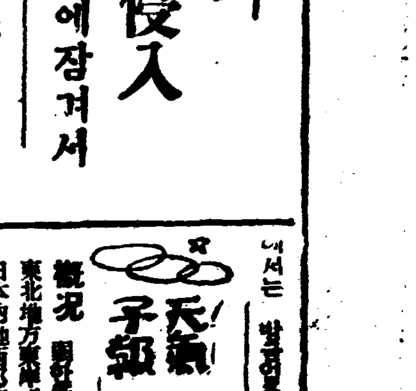
國名	트랙	필드	合計
米國	七一	五六	一二七
芬蘭	二七	二三	五〇
獨逸	二	四〇	四二
日本	六	二七	三三
英國	二五	〇	二五
加奈陀	二〇	〇	二〇
伊太利	九	六	一五
瑞典	七	七	一四
和蘭	九	〇	九
新西蘭	六	〇	六
諾威	二	三	五
波蘭	五	〇	五
라토비아	五	〇	五
체코	四	〇	四
比島	四	〇	四
濠洲	四	〇	四
伯國	二	〇	二
希臘	一	一(?)	二
亞爾然丁	一	〇	一

都市野球第七日經過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第七日準決勝 大連對太田戰은 八日午後一時부터 神宮球場에서열린바 戰況은 다음과갓다

太田	1	0	0	0	0	0	4	0	0	5
東京	1	5	2	3	0	0	0	0	1	12

12…5



槪況 東北地方에잇는低氣壓은 東北方으로 日本內地西部洋上에떠지고 滿洲方面에는氣壓이약하고 朝鮮地方에는 所所에小雨 日本內地는 晴 明日도갓다

豫報 오늘은 京城地方에는 흐리고 때때로小雨가잇슬것갓다 明日도갓다

昨日最高 二九度一
同最低 二三度二
今朝最低 二一度七
今日正午 二五度九

改信한理由

『그대는 선조로부터 전래한 종교를 아주 버린 모양이니 대체무슨리유인가』하고 어떤 사람이 친구되는 『그리스도』신자를 향하야 물엇다 『아―그말다해 무엇하겟나 그러나 좀 들어주게 그대는 죄가 만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신을 밋어 보앗스나 별한 효험이 업섯더니 뜻밧게도 교의 전도를 듯지안핫겟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만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야 이세상에 강림하사 모든 곤난을 당하신 결과 생명까지도 버리섯다는 말을듯고 나는 크게 감복되여 이러한 자비가 깁흔신 하나님이 곳나의의지할 구주신것을 깨닷고 마음에 밋게 되엿네』하고 대답하엿다 그리고 『그대가 밋는 신들 중에 『예수』와 가티 자비가 깁흔신이 잇슬가 그런 신들은 아모것도 하지 안코 잇지 안흔가』 하고 여러가지로 우상 숭배가 쓸데 업는것을 설명하야 들려주엇다

収益多大 人絹、綿布、セル、ネル卸 別珍本絹 一二等品 ハギレ 高橋清商店 大阪市南區末吉橋東詰 電話東四一一三番 振替大阪四三〇一九番 取引銀行 三和 住友

恩給 長期低利融資 特別他に比較無き最有利信用で御貸付ける 京城府橋南町一六〇 鄭商會

指導 社員二名至急採用固定給月收百圓以上有給生又は官公吏銀行會社退職者で特別優待指導 京城府黃金町五丁目 昭和生命京城支部

代理店特約店大募集 警察署消防組試驗濟 特許失火自動信號器 新案近代的出現 釜山府富平町四丁目一五 鮮滿支總代理店 三和商事社 京城府古市町十二 三和商事京城支社 電話本三八二一番

朝報案內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效하야困難한분은『獲書』로申請하면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淺草區 小川藥院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爺內고本業副業으로男女小兒共히自宅에서될수잇는職業、年中無休、說明書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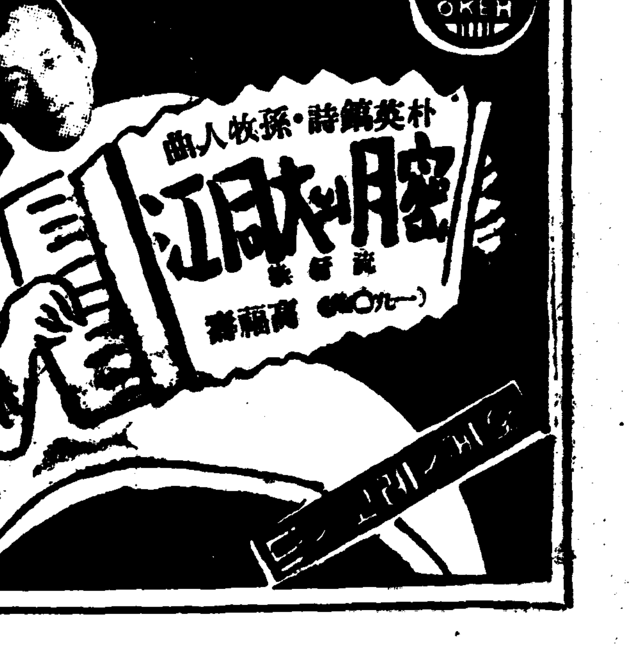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製法傳授 五合의米가八升이되는米菓子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無情의 숨 코-롬비아 레코-드 金福姬 레코-드番號 四〇三四九〇

雨衣都散賣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습니가 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우장옷



이바구版 (이야기)

怪談 오관수다리

심순렬

날볼 서다리께는 저굴로 장충단 공원이되여잇는만큼 노픈 터전도잇고 그늘도 욱어저서여름이되면 밤낫으로 쉬으나 젊은이들이 모혀서 모긔ㅅ불을피워노코 녯이야기도하며 고담책도 읽는 노리터이엿다. 하로는 무덥덥하고 가는 비ㅅ방울도오락가락하엿건마는 그래도 좁은 방속에서 한증을 하다시피 땀을 흘리고 드러안젓는것보담은 남산에서 부러오는 싀원한 바람이빠도 쏘이려고한사람 두사람 모혀든것이 초저녁부터 노리러는 전과 다름업시 이야기소리가 두시런 두시런하엿다.

그러나 하고 만흔날에 이야기도 뭇치잇는법이라 거진 귀새롭운 이야기도 다되여서.모다 심심하게되엿슬때 좌중의한사람이 이 무료한것을 파하려고 말을햇다.

「자- 우리 이럴것업시 이중에서 누구든지 동대문 문루에 올라가서 송곳을 박고오느니가잇스면 한턱내기로하세」

좌중은 모다 찬성을햇다. 그러나 한사람도 내가 가겟다고 나서는 사람은 업섯다. 그도그럴밧게 첫재 동대문까지가자면 장안에서 도깨비가 제일만키로 유명한 오관수다리를 지나가야하고 또 가령 오관수다리를 무사히 지나간다고하드래도 오줌가리 캄캄하고 비ㅅ방울까지 오락가락하는밤에 그 칠칠한 동대문 문루에 올나간다는것은 좀처럼 어려운일인때문이엿다.

그때나 어때까지 한쪽구석에써 맹맹만 빽빽빽빽피우든 떡거머리 총각하나이 불숙나서면서

「저 하고오겟 저를 한턱내시겟소?」

하다. 좌중은 모다 손벽을치고 대답햇다

「내다뿐이야 술한동의 내지」

「나는 북어 한떼내지」

이러케해서 내기는 성립되엿다.

총각은 그대로 긴 송곳하나를들고 동대문으로갓다.

문루까지 기여 올나가보니 문은 강아지가튼 잠울쇠로 잠겨잇다. 어구센손으로 잠울쇠를 비틀어서 문을열고 드러섯다.

주위는 캄캄하고 서늘한 긔운이 원몸에 쭉끼쳣다. 그러나다서 담력을내여서 벽을찻느라고 두손을 내밀고 더듬더듬하는차에 무엇인지 손에 터 걸렷다 따시 만저보니 파래가리 길게 따은 머리끄리에 당기가매저잇는것이다. 정신을차리가면서 다시 더듬어보니 몸에 똣뜻한긔운이도는 사람인것이 분명하다 손이 다으니까 모긔소리만하게

「사람 살려주우」

하는데 바로 문루 대들보에 손을 묵거서 다라매여잇는것이다. 가진 애를 다써서 풀어가지고 문밧그로나와 자세히보니 머리카락은 헝크러지고 얼골은 햇슥하게 질녀서 숨소리조차겨우 들닐락 말락하나 어두운밤에도 환하게보힐만치 어엽분처녀이엿다, 한참동안이나 손발을 주물러 겨우 숨을돌리더니

「누구신지 이러케 살려주시니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수업습니다」

하면서 약간 수집어서 옷깃도 매만첫다.

「대관절 당신은 누구신데 이러케되엿습니까」

하니

「그것은 나중에아실것이고 우선 우리집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집에가서 조용히 말슴을 알외겟습니다.」

하엿다. 총각은 그처녀를 뒤풀로 드려섯다. 가르치는대로 재ㅅ짐어업고서 가르치는대로 재ㅅ이아니라 당시에 하늘이웅치이도록 쩡쩡 울니든 김병조편서집이엿다. 큰 대문에 드려서자 원 집안은 물끓드시 뒤집펴서 사면에 등불이 휘황하고 사람들이 마당에 들끌는다. 대문에 드려서는것을 보고서 수청하인들이

「아씨 오십니다」

고 야단들 치는것을 처녀는 손짓을하여서 물니치고 바로안으로 드려갓다.

총각은 사랑방으로 불녀나와 대감께 그연유를알외엿다, 그러고 그처녀가 그리케된 연유도알게되엿는데 저녁을먹고서뒤방에를 가는데 유모에게 끌을가아떼서 따로뒤깐으로 갓다온 이야기가 못난뒤에 이곳에 드럿다는 대감은 총각을 불러 잘키워보고 나오다가를 어저지 매꼬가는데로 잡혀갓다 자 그로향이되엿다는것이다.

이야기가 못난뒤에 대감은 총각에게 물엇다

「너는 어되살며 무엇을하는아회냐?」

「네 저는 서다리께서사는데 끈 흥감수를합니다」

고대 무엇을하든지간에 이러케고보니 이것은 아주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내는지 게열이 내기잇게하렴」

하고 아주기빼하엿다.

총각은 그이튼날부터 갈월을 벗고 상숭보선을신으며 수건을동엿은 머리에는 복건을쓰고서 머리ㅅ방에서 글을읽게되엿다.

이것은 총각의 이야기다 그러나 서다리께 모혀잇든사람은 아모리 기달려도 총각이 오지를 안햇다 그러 저러 밤을새엿스나 아침에도 오지안햇다. 그제서는 모다 걱정이되여서 동대문으로가보앗다 문루의 문은 열엿스나 송곳도 박히지 안햇고 사람도업섯다 외엽인가하고 차저오는길에 오관수다리까지와서 보니 다리 미테서총각은 조깨구럼을 맴히쓰고서눈이 허연것이 뭇되 하고안젓다 모다들 안심은 햇스나

「이녀석 게서 뭣하니?」

하고 무러다 총각은 역시뭇다.

「이놈들 잡펏마러라 나는 재수를 깁판서 사위라 굶엊는 다」

하면서 무엇인지 중얼거렷다

「이놈아 뒤집어쓴 것은 뭐냐?」

「복건이야」

하면서 역시 중얼거렷다.

그중에 한사람이 총각의뺨을 갈기면서

「이자식 동젓비한테 그예 홀렷구나」

하나까 그제서야 홀트잡바지면서 땀을 흘리고 자는것가리 되것을 모다 떠메고도라왓다.

바위로범을잡은 江陵의李書房

閔丙先

녯여덟 려주(驪州)의 허진사(許進士)라면 지금까지도아조 귀운쇠 장사로 유명하지만은 그럼 장사도 고파를때다는 이야기가잇다.

어느날 다저녁때 누가 허진사집아페 와서 주인장 주인장하고 찻기에 허진사가 나가보니 어떤 헝수룩한 청주하나가 굽노픈나막신을 신고 노혼베갈통을 쓰고 와섯다.

「뉘되이쇼?」

「네 나는 강원도 강릉사는이서방이요. 주인장의 성화를 일쪽부터 들엇는데 이왕 지나는 길에 차젓습니다」

사람이 비범해보이어서 뜰에 오라고 청하얏겟다.

「새벽에 집에서 떠낫ㅣ 아모것도 안 먹고 종일걸은으로 잇섯더니 좋시장긔가 드는구려찬밥이라도 잇거든 좀 주시오」

손의 청에 주인은 고마누라를시키어 찬밥한그릇에반찬가지를노하내다주엇더니 그손은 밥한그릇을 두서너숟에 다 떠어버리엇다.

「아니 부족하시지 안쏘?」

주인이 물으니

「네, 내가 좀 거량이 돼서 한끼에 닷되밥은 먹어야하지만은 괘지에 나서서 어듸 량대로 배를 채울수 잇소?」

하도 이상해서 다시 안해더러 밥을 한솟을끄리라고 해서갓다주엇겟다. 과연 그손은 허풍이 아니고그밥을 그국을 다먹는것이다 꼬히고 나서는 이러스테니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어라고 인사할말이 업소 저동구밧게 집성을 한마리 잡아노핫는데 그것을 정으로 드리고 가오」

「아니 가기는 어듸로 가오」

「네, 고향으로 가야지오」

「지금 그러케 바브게 떠날것이 잇소?」

아니, 새벽에 큰친께서 뒤를 보신다고 해서 모서고나왓다가 조그만 집성이 한마리 뎀벼듭듸다. 그래서 큰친이 아시면 놀라실것이라 아모말업시 그 짐성을 잡으려 나선것이 발불발불 여기까지왓소그려. 내일밤안으로는 도로 가야징 그러치 안하면 큰친이 걱다리시오」

「천여리ㅅ길을 하로 왓다 다 한단말이요?」

깜짝 놀래서 부르짓는 주인말을 드른체 만체 손은 고만 그 굽노픈 나막신을 뚜거어리며 달ㅅ빛속으로 사라지고 말앗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주인은 멀거니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뚱구바글로 나자 보앗다. 거긔는 전에업든 바위ㅅ돌이 하나 덜어저 잇지 안한가? 가만히 바위미롤 살펴본즉 희미하나 잘 보이지는 안하나마 얼룩얼룩한 껍질이 마치 범가리 안한가? 그바위ㅅ돌을 들고 뒤구나 나막신을 신고 범을 조차와서 잡는다니 아모래도 꿈가튼이야기다. 그이튿날 남이 밝기를기다리어 놀니게 나와 본즉그짐성은 분명히 범이요 그바위ㅅ돌도 그근처야산에서 는엇기 어려운것이엇다.

그후부터 허진사는 다시 힘자랑을 못하얏다. 그러고 그사람의 어둥을 못 알어 두고두고 늘궁금히하얏다고한다.

江原道의 三羞洞

재미난洞名의由來

宋在德

강원도의 교동인지 삼수동(三羞洞)이라는 동네가 잇다. 그동네이름은 녯날 어느때세분로인의 이야기로부터 나왓다고한다.

첫로인의 이야기

내가 열다섯살 먹어 시집을 갓는데 바로 그해 우례(于禮)까지 지내엇소. 그때 우리 친정에서 시집까지 삼십리밧게 떠안되엇스니까 새벽 친정서 떠나서는 느즌아침결에 시집에를 와서 현구고(見舅姑)를 하기로 정하얏소. 처음 친정에서 떠날때에는 어머니를 떨어지는것이 서그퍼서 울꼬롤고하얏더니 가마안에 들어안저서 얼마쯤오자니 이것저것 다잇고 배고픈 생각바게업습듸다. 길준비로 설레어 전날저녁도 설치고 그날아침은 숫갈도 못들어보고 엇재배가 아니고프겟소? 떠날때 어머니가 이것이나씹으렴 하고 복근 콩을 수건에 싸서 가마ㅅ속으로 던저주신것이잇구려. 나는 교군군이 알까버 소리를 못내가면서도 그콩을 끄내서는 어느결 다 씹어먹엇단말요. 엇전걸 시집에 거의다와서부터 배가 쌀쌀아프기 시작하오. 금작스럽게 똥까지 마렵소. 그러니 새색시가 어듸서 똥을 누겟다고 말이나 할 수 잇소. 고저 참는수밧게 때 잇소? 그런데 시대고모되시는 분이 철을 시키신다고 서투룬 솜씨에 엇저 꼴을 막우 빠다문시는지 몹한 죽을지경이요, 쉰것을마 끼쇡이는따에 때 참을길이 업서왕과 똥을 쌋소. 냄새가 안 나나 새지나 안나 내마음이 어떠코 내 얼골이 어떠켓소? 그저 무서운되나 진눈지켈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속이 탈것아니요? 그런딱에 어서솔히은 시동생아이가 「어듸서 구린내가 난다」하고 그저그러케 말하고 다니는구녀 누가 똥을쌋서놓고 잇서도조치 나중에는 이 사람저사람 콩콩이를 조차다니며맛트니 내게 와서는「어머니 새아주머니가 똥을 쌋서」하고 외치는구려 나는 고만 펄떡 주저안젓소 내평생에는 그보담 더 부끄러운 일이업소.

둘째로인의이야기

그게 무어 부끄럽소? 나야말로 시집 갓와서 참 부끄러운 꼴을 당하얏구려. 나는 열여섯살에 신랑은 불과 열두살 이라말야. 거긔다가엇지나 잔작한지 꼭 엇살줌되야 보이는데 외아들로 응을 밧고 커서 철도엽지. 첫날밤 신방을 차리는데 가난한 살림에 어듸 방인들 만소?옷간에서는 시부모가 주무시고 아래ㅅ방을 신방을 치워 노치 안햇겟소? 신랑 명색이 자다 말고 오줌오줌하더니만 오줌ㅅ방울을 떨어트리는구려 그것을 그대로 싸게 두고보면 내일 내가 싼것처럼 되겟스니까 할수업시 요강을갓다가 대주엇구려. 그랫더니그 이튿날 웃방에 내려가서 자긔 부모를 보그는「새시가오줌을 누여 주어다눔」자랑을 하지 안소? 그말을 듯는 내 얼골이 어때겟스며 뎌구나그 다음 싀부모를 보일때 내얼굴이 어때겟소? 거긔다가 작난ㅅ군이 웜가들은 고저 신랑이 오줌 누는 것만 보면 해너의 색시를보고 누어 달나지 안느냐고 조롱을 해대우그려. 그러할때마다 나는 쥐구멍을 차젓소.

셋재로인의이야기

그것도 내이야기에대면 그러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내이야기를 좀 들어들보오. 나도 네나히 열다섯살이나 되여서는 어린 신랑에게로 시집을 왓소. 때구나 우리집가문은 면이 놉되엇서도 좀 지체하신 어려서또 말이 못되는 까닭이잇소. 그저 도둑이란 이로 다 옹기지를 못하오. 그러다고 불사스럽게 하다보면 싀부모한테 낫칫그저 네네 죽어지내엿지 할수잇소? 그런데 내가 시집오든 바로 그해 싀조부의 환갑이되얏소. 박게서는 모도들 지짐질을한다 고기를 다진다 하고는 뒤마들에 놀어안저고 임질을 하기로 되얏소. 마침 시누님이 애기를 재우러 가신동안 신랑작자가 들어오더니만 그저 더퍼노코는 그저 실과를 집어먹는구려. 그냥두엇다가는 내가 먹은것 처럼 되고보니 안 말할수 잇소? 먹으려거니 먹지 못하게 하거니 둘이 한참 다토는데나를 차는신랑의 발길이 병풍을 빗마추어 광하고 병풍이 쓸어지면서 우리내외는 그병풍에 치어서 나자빠지고말앗소. 자빠지나마도 어쩌면 그러케 의조케 나란히 자빠지요? 일어날 틈도 업시 우하고 어른들이 쫏차오셧구려 암말씀도 안하고 실과를 주어담는데 더 무안하지안쏘? 신랑이 아주 어리다고 내외한방을 못쓰게 하시든 시어머니가 한갑잔치가 지낸뒤는 돌봉히 내외한방을 쓰라고하시는구려. 나는 변명도 할수업고 그저 부끄러운 생각에 혼자 울기만 하얏다오.

胃腸增强藥에는

健康은먼저胃腸의强健으로、仁丹을常用하면胃腸의機能을正規的으로하고榮養을促進하야、顯著히活潑케되여潑剌한生活力을充溢케함 特히胃腸病者에게對하야는不可缺의常備藥。

口中芳薰料에는

口臭가나는것은致命的品格의破綻입니다恒常仁丹을口中에너으면口邊으로는不絕히芳香이漂流하야口熱을除去하고聲音을아름답게하고口腔의殺菌을하야自他共히참으로淸淸한氣分을享樂함。

仁丹主劑外에高貴藥人蔘파비다민B를倍加特製하야 好評이益益增加함

銀粒仁丹

傳染病豫防

炎暑를當하야、腸窒扶斯、虎列剌等傳染病이猖獗할季節이되엿습니다、衛生施設에一般不便을느끼게되는때에는더욱各自가自衛豫防의必要를切實히느끼는것입니다。仁丹은胃腸을强健히하고榮養吸收를充分히하야根底로부터强健한身體를만드는것을目的하고此等傳染病菌에의抵抗力을 養成함에는더할수업시適切합니다。

咽喉衛生

여름의半島特有한乾燥하기쉬운空氣는더욱이 猛烈한風塵에 咽喉衛生의不充分으로 도되어 本格的인呼吸病에걸린다는例가特히만타、仁丹은먼저口中에너으면 第一로어 咽喉衛生을完全히하는 藥効를 더욱爽快淸凉하도록 遺憾업시發揮하야 救急과消毒에까지[illegible]中必携藥

銀粒仁丹定價
御試用分(百五十粒)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三十錢
家庭容器入(九百粒)五十錢
御徳用分(千粒)五十錢
御徳用袋入(二千五百粒)一圓

仁丹本舖・大阪 森下博營業所

家庭

마늘이 약이라도 만히 먹으면 위험
무서운빈혈증에걸리지안차면 하로세개이상먹지말자

한때는 마늘가티 냄새가나는것을 어찌 먹느냐고 문명한 사람들은 못먹을것가티 떠들엇습니다。심지어는 조선사람들이 마늘을만히 먹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비난도하고 욕도 하얏습니다。그러나 요사이와서 의학이 튼튼하야 진다는둥 폐스병에조타는둥 또 장생불로를한다는둥 선전되는바람에 너도나도 모도 마늘입니다。한다하는 신사숙녀의 제씨들이 상을 찡그리어가면서도 마늘을 자시기에 열고가 나는 판입니다。물론 마늘이 몸에 조흔것은 사실이로되 그역시 먹는분량의 제한이잇습니다。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만히만 먹는다면 몸에 보하기는커녕 도리혀 해가 잇습니다。

마늘을 넘어 지나치게 만히 먹은 경우에는 심한 정도의 빈혈증(貧血症)이 일어 납니다。그것은 두가지로써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一) 병원에 입원하려온 극도의 빈혈증환자 중에는 마늘을 만히 먹는 사람이 잇섯는데 마늘 십일이상 내지 한달까지 먹지못하게 금한결과 그 빈혈증이 깨끗이 나헛습니다。

(二) 그다음 다른 동물에다가 실험하야보기로 정하고 일정한 체중(體重)이 나가는토끼에게 하로오그람중의 마늘을 주어서 먹인즉 그토끼는 빈혈상태를 나타내고 잇섯습니다。

이두가지로 보아서 마늘로 인하야 빈혈증이 일어 난다는 것은 거의 의심이 업습니다。그저 먹기만 하라고 그럿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과한때에 한해서 그럿케 되는 것입니다。

×

토끼의 예로 미루어서 십삼관 사백몸매쯤 되는 사람으로 따진다면 하로 십오그람이상의 마늘을 먹을수 업습니다。오그람은 크지도 안코 적지 안한 마늘 한개니즉 그러한 마늘을 세개이상 먹어서는 못 씁니다。그런데 마늘로 인하야 나는 빈혈증은 빈혈증에서도 몹시 심합니다。혈구(血球)가 파괴(破壞)되는것은 물론이요 혈색소(血色素)까지 분해(分解)되는 동시에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수족의 운동까지 부자유하게 되는것입니다。그 빈혈증의 증세를 들면

(一) 얼골이 창백(蒼白)해 지는 것

(二) 입속의 점막(粘膜)이 누르끼을 띄우는 것

(三) 분해된 혈색소(血色素)가 오줌에 석기어 나오는 까닭으로 오줌도 보통 때보담 불근비츠로 변하는 것등

×

이러케 되는 것은 밥듯이 마늘속의 무슨 성분(成分)으로부터 중독(中毒)되는것이라고 추치하고 마늘을 분석(分析)하야 보앗습니다。그결과마늘에는 휘발성(揮發性)의 물질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페닐히드라린」이라는 물질의작용이 잇는것을 알앗습니다。이「페닐히드라린」은 결핵균의 번식도 억제하거니와 열도 나리게하야 그 두가지방면의 조흔 약으로 쓰이는 것입니다。요컨댄 마늘에는 그것이 잇슴으로서 약도 되지만은 다른한편 분량이 과해서는 중독작용을 이리키는 것입니다。하여튼 금후부터 마늘광들은 그 분량을 꽉 주의해서 자시셔야 합니다。그러치 안 하얏다가는 무서운 빈혈증에 걸리어 바리고 맙니다。

떠남니다!

가정의학

볼에서고름

問 금년이십삼세된 남자입니다 재작년팔월에지치(智齒)가나오면서(니드렁을조금델어저 나옵니다)볼편이 부엇든것이 결국은 농화하야 칠일만에 곳수술을밧고 일업섯는데 그후 한이십일만에 또그쪽이 전과가티 부으면서 농화하야 다시수술을밧고 심지를햇는대 아즉것매일피가리고 름이나오면서 치료가 되지안습니다。니는지금도 완전히 나오지는안헛스나 밧도칭신나왓습니다。시골의사들은 병명조차 몰은다니선생님!특별한 가르침을주옵소서 (咸南文川一苦生)

答 당신의 말슴과가티 사랑니가 나오려고 볼편이 멧번이나 부엇다지요 과연그러합니다。사랑니란 입안제일구석에 나는것이니만치 이가 나올려면이 매우좁은곳이올시다 그런고로 이가 나올때 순조로 나오지를못하고 여러가지 병을 갓게되는 례가 만습니다 아마 당신의병도 사랑니 뿌리에서 생긴병이 점점 커저서 볼까지 부은것갓습니다 그런것을 외부 즉 볼면을 수술하엿다하니 원인된 사랑니는 그대로두고 볼만 치료한다면 도모지 낫기어려울니다 속히 그곳(智齒部)을 렌트겐사진을 박혀서 원인을 자세히 안다음 다시 수술하도록 하시요 만일 사랑니가 원인이되엿다하면 그 사랑니를 뽑아내인뒤에 이、삼일간 치료하면 신긔하게 나을것입니다

(세부란스病院齒科學敎室 金喆穆)

이재미로 사러 갑니다

여름철의고질 땀띠와짓무름
간단하게되는예방과치료

여름철에만 생기는 두가지피부병이잇습니다 첫재가 땀띄고 둘째가 짓무르는것입니다。이것은 조곰만주의하면 나지안는것이지마는 잘못하면 한여름동안 큰고생을하는것입니다。

【땀띄】 이것은 피부가약한 어린애들의자국이나 의복에시처서 저온 경우에땀구멍가튼것이 막키게되어 나서 마치좁쌀알만한것이 나는데 잘못하면 왕땀띄라고하는 콩낫 만큼식하게 큰것이되여서 몹시 근지럽고 그래서 잘긁다가 불결한 균이라도 드러가면 나중에 성종까지하는수도 잇습니다。이것을 전문적으로말하면 일종의 급성습진입니다。

【예방법】 이것을예방하는 데보통때에주의를해서 땀을잘 씻고 아연화전분(亞鉛華澱粉) 이나 「싯카롤」가튼 것을 발러둡니다。그리고옷은 될수잇는대로 엷게입혀서 땀이만히나지안도록 할일입니다。잘 때는 고무주머니에 물을너흔 벼개를 비여주는것도 조치마는 그까지는 못하다고 하드래도 어른들이 충분이 주의만하면 어린애들의 땀띄는나지안케할 수도잇는것입니다。

【치료법】 엇지다 잘못해서 땀띄가나거든 복사나무납사귀를 삶은물에다가 몸을씻겨주면 조습니다。몸을 다씻은뒤에는 역시 아연화전분이나 「싯카롤」을 발러주는것이 조습니다。이밧게도 일반으로서 석탄산아연화(石炭酸亞鉛華)리니멘트를 발르는것도 효력이 잇는것입니다。

【짓무룸】 이것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것업시 살이만히찐사람들에게 나기쉬운것인데 대개겨드랑이나 오굼텅가튼데 살이서로맛닷어서 시치는 부분이 그마찰의 자극과 땀이나 오짐 가튼것의 자극으로인해서 생기는것인데 이것도일종의 급성습진 이래서 짓무른데가 몹시따겁고 아픈것입니다。

【예방법】 첫재짓물기쉬운 국소를 늘깨끗하게 할일입니다。그리고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긔에다가타르크분이나 아연화전분을 뿌려두는것이 좃습니다。

【치료법】 데게 흔히 붕후 때서지물은 때문에 붕산연화를 리브느기름 을발르고그우에찬운 붕산수로식부 찜질하여서 간조하게하면 허렁든데가 차차나어 가는것입니다 그리고 그우에다 가루가루를뿌려 동안 완전히낫는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개울에나 가 놉니다。바위돌틈으로 흐르는 산ㅅ골물이라 떡깨끗하고 시원합니다。그리고 물이깁지 안흐니까 마음노코 놀 수잇서요。
돌맹이를 주어모아 성 도싸코、가제도잡고 합 니다。이러니까 우리는 더위를 모르고 지냅니 다。

(금산사람 시골동무)

童話

이상한알녹새

(一) 童研 南基薰

어느곳에 용남이라는동무가잇섯습니다 하루는용남이가 동무들과놀고잇스랴니까 다른동무들은 학교에를드러갓다 졸업을햇다하고기뻐서야단들이엿습니다 그러나 용남이만은 아버지어머니와 단세식구가 살어오다가 얼마전에 아버지가도라가신후로는 단인든학교조차 그만두고 허구한날 갓가운 산으로 도라단이며 마른나무닙을 글거다 그것을새벽일즉이 이러나 나무장에갓다 팔어가지고 쌀을사오는것이 매일가티 하지안흐면 아니될 일이엿습니다

그러나 마른나무닙을 글그러단이는 사람이 용남이한사람뿐이아니요 여러사람들이 허구한날 글거가니 인제는 가까운산에는 마른닙을 보기조차 힘들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사람이 가지안는좀먼산을차저갈생각으로 어머니에게 『내일은점심을 좀싸주세요』하고 그날을지나 잇튼날은 어머니가 듬뿍싸주신 점심그릇을 허리에다가아조떠러지지안케 튼튼이차고 논두렁 밧두렁을건너 얼마를거러가라니까 거기에는 큰느트나무가 하나서잇고 그아래로는 마른입이 산과가티싸혀잇섯습니다 이것을본 용남이는기쁘고 반가워서 춤을덩실덩실추다가 혼자말로

『야ㅣ참조쿠나 이러케만흔니오늘은홍배해가지고가겟다』하고 또한번 춤을추면서 점심그릇을 풀우에노코 부지런히 마른나무입흘 글거다가 색기로 묵거서는 엥치기엥차하면서 지게우에 언고나서는 풀우에 펄썩안저한 숨을길게쉬고 해를처다보니 점심때는 벌서 지냇습니다

『야ㅣ참 오늘은엇지도 나무가 만흔지 배고픈줄도 모르고 나무만 글것고나인제점심때가 지냇스니 밥이나좀먹어야겟다』

이러케 혼자말로 짓거리면서 점심둔곳을 어슬렁어슬렁거려갓습니다 아ㅣ이일이 웬일입니까 빈그릇하고 밥을싸가지고왓든보재기만남고 밥은한알도 구경할수조차 업섯습니다 용남이는깜짝놀라며 『아ㅣ이것참 이상하다 그런데 내밥을누가 먹엇슬가하고 이쪽저쪽으로 살펴보앗스나 조고만 알록새하나밧게는 아모것도 업섯습니다 용남이는 가만히고개를숙이고 생각해보앗습니다。 우리어머니가 빈그릇을 싸주섯나 설마 빈그릇을 싸주지는 안흐섯슬텐데 누가깜쪽가티 먹엇고나 아이참분해죽겟네』 그러나 할수업시 무거운 나뭇짐을지고는 아이묵어 아이묵어 하면서 땀을 흘흘 흘리거며 집으로돌아왓습니다 용남이는 이튼날도 점심을가지고 어제 갓든느트나무아래로와서는 오늘은 점심밥을 일치안흐리라하고 나무로 살금 살금올라가서 매쏫가지에다 간신히매다러노코는

『오늘은설마도누가 먹을라고』 이러케 큰소리를하고는 망올터노코 다시 마른입을 글기시작하엿습니다 얼마를 긁다가 해를처다보니 또점심때가 지냇습니다。그래서 점심을 먹어야겟다하고 다시 나무로살살기어나가서 점심밥을 끄내다가 보재기를 클럿습니다 아니 이게또웬일입니까 전날과 가티 밥그릇과 보재기만남고 밥은한알도업섯습니다 용남이는 어머니가애써 싸주신밥을 먹지도못하고 이를째나 이저버리고 가는것이분하기도하고 원통하지만 할수업시 지게를지고 기운이업는지라 땀이배가곱하 줄줄흘렷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이러나가지고 힘업시 맷발을내노차니까 어디서인지 용남아저씨 용남아저씨부르는소리가 들렷습니다 용남는깜작놀라서 이쪽 저쪽살펴보지마는 아모것도 보이지 안헛습니다 너무도이상하여

『무슨소린가 바람소린가』하고는다시거러갈랴고할때 또

『용남아저씨 용남아젓씨』하는 소리가낫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도 크고 똑똑하게 들렷습니다 용남이는 깜짝놀라며 "누가나를또부르니"하고말하랴닛가

『네ㅣ저올시다』하고 또말소리가 들렷습니다 용남이는 너무도이상하고 궁금증이나서

『제가누구냐 어디잇니』하고물엇습니다

『저 용남아젓씨 나무해가시는 느트나무새에 잇지안습니까』이말을듯자 용남이는 느티나무아프로 갓가이와서 요리조리 살펴보죽 아닌게 아니라 그느트나무가지에는 아지못할 알록새가 안저잇섯습니다 용남이는너무도 기가맥히고도 이상해서

『앗가부터 네가나를 불럿니』

『네ㅣ그럿습니다 그런데용남아저씨 어제오늘밥을 잘먹엇습니다』용남이는 속맘으로 이상한말을다한다생각하고

『내가 언제너를밥을주엇드냐』하니까 알록새는 가장귀여운소리로 대답햇습니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西洋畫科(四君子畫包含함)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狀 副賞 十圓

入選作中에서左記一般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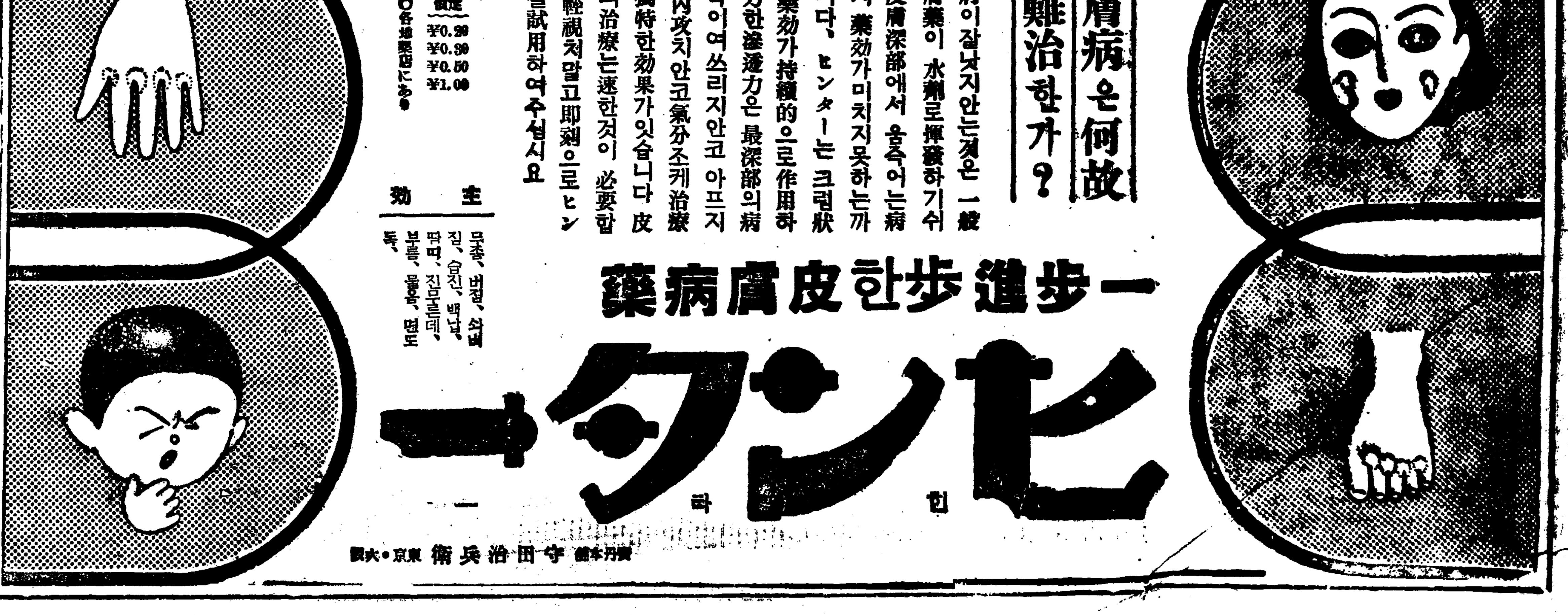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記支局을通하야 搬入할時는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銷夏漫筆(六) 山水의理想鄕

湖岩

宮闕의 王陵은 무엇보담 山水의 淸麗함에 잇다。

風水가튼 山水의 理想鄕에 태여난 朝鮮人은 自然美의 惠澤을 남달리 만히 바든만큼 어떤點에서 一種淸福이라면 淸福이다。

高山峻嶺이 金剛山에 흔하며 長江大河가 나오게되고 長江大河가 흐르는곳에는 平原廣野가 열리게되는것이 거의 地理上 原則가티 되여잇것만 白玉에도 티잇스든셈으로 山水美의 寶庫인 半島안엔 大平原이 업서서 잃은바 沃野千里天府의 土와 江南財賦의區는 到底히 볼수업다。

都市의 山水美로는 漢陽城內外가 모다제각기 特色을 가젓스나 明媚秀麗한것으로는 그래도 平壤을 먼저 꼽을수밧게 업다。그名著八域志에 平壤을 江原의第一勝地로 推奨하엿다 牡丹峰을 主脈로 左右低山脈이 市街를 抱擁하엿고 이低山脈外에 도다시東으로는 大同江、西로는 普通江이 잇서서 市街를 겹으로 抱擁하야 나만치 平壤이 四千年歷史都임을 首肯하게한다。安東河回를 自來後鄕으로는

하나 入選해에도 어곳山水를 매우 讚揚하여지만 山水美로는 어데어더하야도 嶺東을首位로 칠수밧게업다。그러나 嶺東山水에 對해서는 이미世間의定評이 잇스므로 구태여贅論을 하지안키니와 金剛名山하나로도能히 다른 모든山水를 壓倒하고 남음이 잇슬것이다。朝鮮을 山水鄕이라하면 江原道는 그代表的 理想鄕이라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보라 山岳에는 金剛外에도 雪岳山、五臺山가튼 名山들이 잇서서 언제나 稀有를가진仙人의 棲息하는 目標가되여잇고 海岸에는 嶺東八景가튼 天下絶勝이 잇서서 예로부터 一般人口에 膾炙되는것이 아닌가。

竹杖芒鞋로 金剛의靈山을 遊覽하고 嶺東의 八景을 踏破하야 山水美를 盡토록 배불리함도 또한人生의 快事가아닌가。「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이라고 한몸 中國人도 잇다하거니와 中國에 태여난 우리네는 아침에 金剛山에갓다가 저녁에 집에 도라올수잇스므로、金剛山 구경의 一大壯觀을 滿喫하고 아니할는 제각기 自由에 맷긴바나 冊에잇는 普天率土는 볼수잇는때로 名山大川을 遍歷하야 浩然之氣를 키우는것이 조흘줄로잇는다。

어번本誌에서 探勝하려는白頭山은 金剛山보담도 어느意味에잇서서는 朝鮮人에게더큰 靈山이라고 하겟다。歷史上靈跡을 나아주고 苦難을 키워온 그러한點에서 朝鮮人에게 朝宗을 半島地域의 團結을 잇우웟스며 民族的信仰의 對象을 지엇섯음으로써다。은근남비록 그一半이 滿洲에屬하엿스나政治的 境界線은 어찌되엿든지 朝鮮人의 腦裏에 깁히 바친 白頭山그것은 까딱하지안코 그대로잇다。白頭山은 金剛山과같이 石山이 아니고土山이며 金剛山처럼 奇絶하지아니하고平凡하다 말하자면 白頭山의偉大는 차라리 이平凡하다는데잇다 그러나 平凡하다하드라도 어대까지 崇嚴하고 瀟灑하야 一見에 놀라나 靈山이란 感을 불러키게되나니 金剛山을 山의 君子라하고 白頭山을 山의 聖者라한이 이때문이다 朝鮮에는 白頭金剛 以外에도 到處에 名山이 만흐니 京畿道에 北漢山、五冠山、天摩山 黃海道에 九月山、長壽山、首陽山 平安道에 妙香山、龍岡山、七寶山、忠淸道에 俗離山、鷄龍山、慶尙道에 太白山 伽倻山 全羅道에 智異山、濟州에 漢拏山等等 이러케 各道의 代表될만한 名山이 업는지잇다。우리는 愛山水를 좃더키워서 天興의 淸福을 享有하여야 하겟다。

學藝

八月創作評…④ 通俗性과「스토ー리」

金煥泰

薔薇(朝光) 安懷南 作

「그」는 아무런 感動도 받지못하엿으나、또무슨큰 缺陷도 意識치못하고 못가지엇다。그러나 그後에 나에게는 무엇을 볼수잇으리라고 期待햇다가 보지못한때와가튼 不滿이남엇다

本妻가잇는「그」와는 서내가 果라는 妓生노릇하든女子와 戀愛를하야 이곳에

……三…角關係가 생긴다。그런데「그」와「나」와 그리고「그」의안해와「나」의안해와 친구이어서「그」는「나」에게自己의 안해와 離婚할수잇도록 하여달라고 懇請하고「그」의안해는「나」의 안해에게 自己의 男便의 마음이 돌아스도록 周旋하여달라고 조른다。그리하야 이런이야기가「나」의 입을通하야 우리에게 傳達된다。

그러면 나의 不滿은 어데에 由來한것일까?

우리의 心的生活에잇서서 가장 熱烈히 燃燒하고 가장深刻하게 苦惱하는것은 男女間의三角關係에서일것이다。그리고 이三角關係는 呼訴하고 依賴할곳이업시 靈魂과靈魂이 서로부다칠때 가장 熱烈해지고 深刻해질것이며、또그때의 歡喜와 苦惱는 第三者의 입을 通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입으로 吐露될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흔들것이다。

따라서 이作品에 나타난 三角關係에 잇서서「나」와「나」의 안해가

……綫…衝的役割을 하지안하엿든들、「그」와「그」의 안해와 果라는女子 「그」와 果의 愛人이 맛난 그場面이 칠신더切迫한 場面을 일우엇슬것이요、그들의 苦惱와 歡喜를「나」라는 그들과 接觸하는 第三者의 입으로 通해서가 아니라、作家가 客觀的으로 이야기하든거 그들 中 누구한사람의 苦惱와 歡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저 하엿스면 그사람의입을通하야 제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엿드면 절신 더 深刻하고 熱烈하엿슬것이다。

勿論第三者의 그런事態에의介入이 그事態를 더욱切迫하게하거나 또는 그事態를 어떤展開와解決의길로 引導하여주는때에는 그러지도 안흘것이나 이作品에잇서서는「나」와「나」의 안해의存在가 이곳에 남긴事態를 더욱切迫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엿고 特한展開를 시켜주지도 못한것은勿論 도리혀焦點을 稀微하게하여주엇다。

이리하야 이作品속의 事態에 必然性과 緊迫性이 不足하엿고

……人…物의性格이 모다稀薄하여젓스며 따라서 强烈한 憂愁도 歡喜도 업엇다。나의무엇을 볼수잇스리라고 期待하엿다가 보지못한때와가튼 不滿은 眞實로 이곳에서由來한 것이엇다。

저무는故鄕(朝光) 姜鷺鄕作

이作者는 通俗性에對한 새로운見解를 가지고 이作品을創作하엿다고한다。이通俗性에對한 새로운見解」란무엇을 意味하는것인지몰으나 萬一그것이 作品의「스토ー리」에 對한새로운 關心을가지고 이作品을썻다는 意味라면 나는 氏의그런 關心이 이作品속에 얼마만큼나 로使用되엿다는것을 認定하며 또氏가 그런關心을 가저다는것에 滿腔의支持를 表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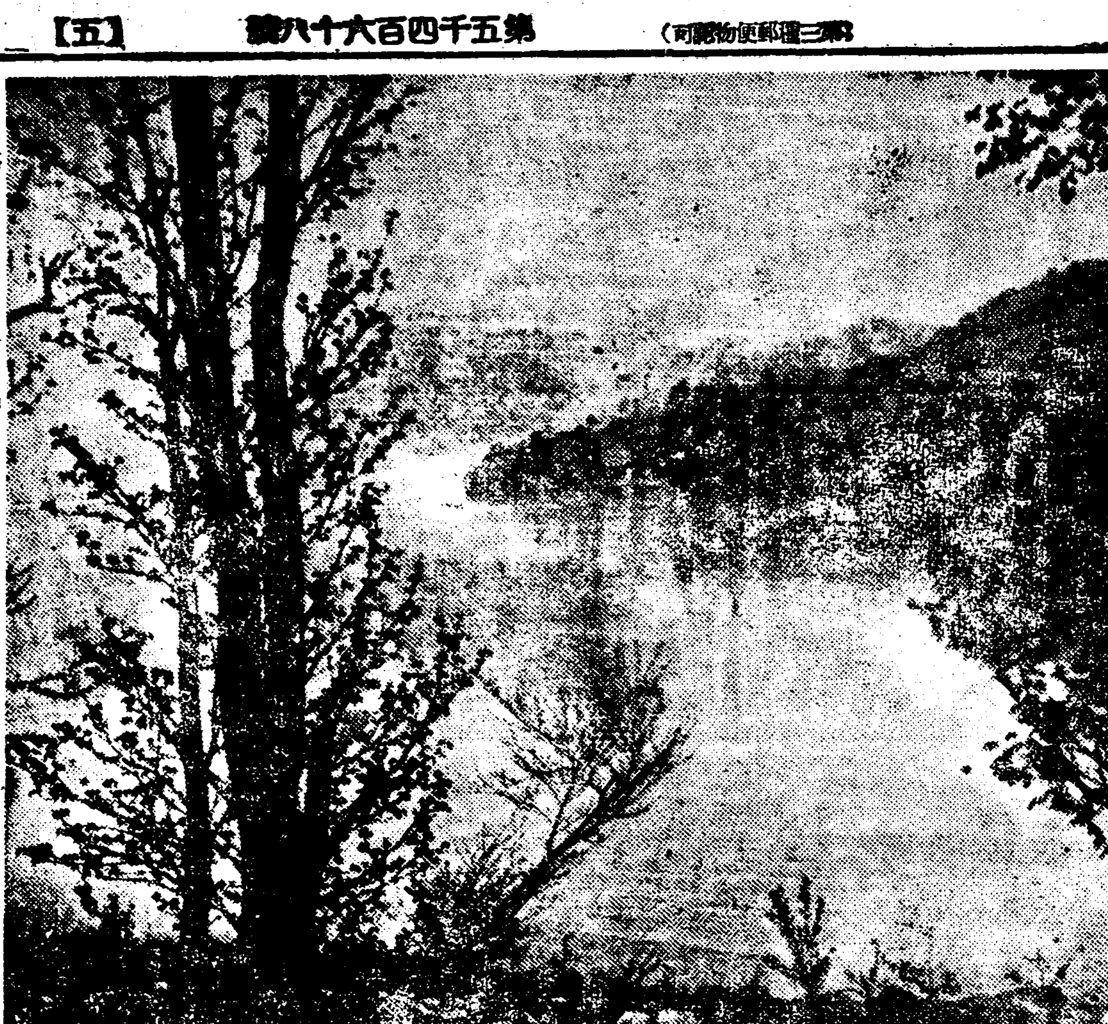
在來로 우리文壇에는「스토ー리」가 우리의 興味를 끌어가는 作品을 通俗小說 그러치안은 作品을

……純…粹小說로아는 傾向이 잇섯다。그러나「스토ー리」는 作品의 本來의生命임으로 한作品의 通俗性과純粹性은 그「스토ー리」의 興味의 有無如何로 判斷할것이아니다。小說의「스토ー리」가 心的必然性을 가지지못하고 다만 우리의 病的感傷에 呼訴하야 우리의 興味를 자아낼때 그小說은 通俗小說이되며「스토ー리」그것이 한性格을 가추어 한事態를 우리의 健全한感情과 通하야 우리로하여금 늣기게하고 理解하게 할때 그 小說은 純粹小說이 되는것이다。

그러면 이小說은 完全히 在來의 意味의 通俗性을 버서낫슬까?

이作品은「스토ー리」에 넘어나 化粧이 濃艶하다。그리고作者의 지나친感傷은 文章에 過한 着色을 하엿다。

따라서 이作品은 그의조흔意圖에도 不拘하고 아즉도 通俗的 色臭를 完全히 떼어 바리지못하엿다。



微笑하는湖面

日光療法과 大氣療法 (四)

李富鉉

造血機能에 對하야는 造血機能을 旺盛케한다。特히 貧血狀態의 患者에게 日光浴을 시기면 赤血球數와 血色素量의 顯著한增加를본다。白血球에 對하야는 照射時와 그卽後에는 顯著한增加를보나 約六時間後면 照射前과가터진다 血小板에 對한影響은 不明의 域을 脫치못하엿스나 血液의 凝固時間은 顯著한短縮을 볼수잇다。

神經系統에 對하야는 輕度의刺戟作用을한다。그밧게 消化器에對하야는 別로 影響이업다하나 度가 過할때는 消化不良이 온다。內分泌에對하야는 別影響이업다고한다。

以上은 日光照射가 生理的일때에 말이요 度가過할때는 여러가지病이 發生한다。이것은 日光의 直射를 長時間바든 後에 日射病이 오는것을 보아알수잇다。그러나 日光直射로 因하야 發生한 病은 全部日射病이라고 할수잇는것이요 이것을 細分하면 醫學上 여러가지 病이잇는것이다。

그러나 治療를 目的하는 日光浴을 論하려는것이 目的임으로 이것을 略하기로한다。

日光療法은如何한病에조흔가

日光療法을 歷史的으로 볼때 먼저 外科的疾病에 應用되엿스며 實로 그範圍가 廣汎하야 外科的疾病全部에 應用되엿다고 까지 말할수잇다。그러나 現在 크게 問題가되는것은 結核性疾病이라고 아니할수업다 肺結核에 對한 日光浴에 對하야는 相當히 理解도하고 實行도하야오는듯하나 外科領域의 結核에對한 日光浴의 効果에對하야는 一般의 理解가 적은듯하다。

只今으로부터 三十年前 卽日光療法이 盛行하기始作한 當初에『베른할드』가 發表한 論文을 보드라도 日光療法의 活用範圍는 廣汎하엿다。

單純한 外傷으로 因한 傷處를 비롯하야 血液循環不良 營養障碍等으로 因한 難治의 潰瘍 凍傷 脫疽菌으로 因한 膿瘍氣 普通皮膚病全般 軟性下疳等은 勿論이요 單純性及 結核性의 骨及 關節의 疾病에 널리 應用되엿다。

以上은 外科的疾病이나 內科領域에도 肺結核 結核性肋膜腹膜炎은 勿論이요 白血病『바세도ー』氏病에까지 應用되고 小兒科領域의『라히티스』病에도 應用되엿다。

日光浴의 活用範圍를 一一히 枚擧할수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며 別意味도 업는일이므로 나는 다음에 第一重要한 肺結核患者의 日光浴及 大氣浴의 効能과 그實行上의 注意를 써보려고한다。

肺結核의大氣療法

空氣浴은 光線療法보다 消極的인것이니 空氣浴과 日光浴은 그作用과 適應症이 달음으로兩者는 全然區別해야한다。空氣浴은 大氣療法을 意味한다 空氣浴이란것은 裸體 或은裸體에가까운狀態로 空氣에서 運動하는것임으로 日光은 必要하지안타。

流動하는 空氣속에서 裸體로運動을하면(구태여 運動을하지안허도 無妨하다)流動하는 空氣와空氣中에 分散된 光線으로 因하야 一種特有한 刺戟을밧게되나니 空氣浴의 作用을 簡單히 말하자면 强한 皮膚刺戟이라고말할수잇다。空氣浴을 할때는 最初에는 皮膚血管이 縮少하엿다가 다시擴大된다。皮膚血管의擴張에 따라서 心臟機能은 抗進하게되고 物質代謝도 또한 旺盛하여진다。先天的으로 虛弱한 사람 或은 皮膚에疲勞가 生하야 皮膚의 生理作用을 充分히 發揮하지못한 사람은 그皮膚가 獨立的으로 障害를 이르키어 그作用을 回復시기고 强하게한다。그런때 空氣浴을하면 그 皮膚가 獨立하야 어떤 重大한 使命인 皮膚의 生理作用을 强하게 하는것이다。이것이 空氣浴의 第一重大한作用이다。그럼으로 이目的을 達하기爲하야는 皮膚가 거기에잇는血管의 自立的 調節에依하야 溫과 冷에對하야 敏感하게 反應할수잇도록 長久한 時日을두고 鍛鍊을해야한다。그러나 病弱한 사람은 이目的을 達하기前에 皮膚調節作用의 不充分으로 因하야 感冒를 들기쉬운것이니 이點을 特히 注意해야한다。

肺結核의 空氣治療를 目的할때는 特히 이皮膚調節作用의鍛鍊이 重要하다。肺結核이라는病은 단지 呼吸器만에 局限된病이아니요 一種의 全身病이라고 보는것이옳다。그럼으로 肺結核患者는 그皮膚도 病的狀態에잇다。다시말하면 皮膚가 가진여러가지 使命과 作用이 弱해지고 또는 잘못遂行해진다。皮膚呼吸이라든지 땀(汗)의 排出이라든지 皮膚의 神經支配나 血液의 流通이라든지가 弱해지고或은 잘못되게行해진다。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海底化石

(上圖) 海底의 岩片에 含有된 珪藻化石

(下圖) 海底의泥中에 含有된 放散虫化石

學生通信

民謠를通해본 吉州‧明川 (三)

零城學校 金鍾漢

七寶山

作曲家인 B兄이「明川저자가」를 作詞하야 달라기에 그 第三節에 나는 이런것을 썻다

七寶山 山중이
動鈴을오면
우리에기 잠잘아라
입살홍주네

事實 吉州明川 사람들에게는 큰 關心을 가지게하는 七寶山이다。咸北金剛의 別稱이 잇슬만큼 秀麗한 名山이外에 開心寺라는 大刹의 所在地로 有名하다。

七寶山이 우두룩 汽車가는소리 베찌든 애기네 보따리를 꾸린다 라면 너머 低俗하지만은 如何間 汽車소리에 얼빠진 님 아레는 기도를 올리고 어린애나 나흐려는 至誠스런 女들도 볼수가업고 春秋의風光을 찾아오는 遊覽客의 宿泊所以外에는 慰藉를 못가지는 開心寺가되고 말앗다。

住持가 第二世를 두엇으나 두고잇다는 風說이 登山者인 우리의귀에까지 들릴때에는 아마 內容이 퍽 腐敗한 모양이다。

七寶山 第一景은『새벽의開心寺의 展望』이다。나의 日記의 一節—

너무나 廣漠하고 嚴肅한 自然의 斷層을 아페노코 나는 紙鍋처럼 숨결이갑바지는것을 느낀다。이 深奧하고 幽邃한雰圍氣 속에서는 봇견듸기에 내心臟이 너무나 적엇든것이외다 脚下는 千丈斷崖—어제 내올라온한줄기 빗탈길은 이슬에 洗禮바든 雜草에 더퍼 過去와도 가리 자욱한 안개속에 잠이들고 어데서 노루 울음소리 자못 애연히 들녀 옵니다。

저건너는 千佛峰。阿彌陀의새벽달! 千佛峰은 지금 大覺스런 蒙古로 따운‧라인(黎明線)을 그리고 그저편의 自然의기피를 말하는듯이 엄연히 잠이들고잇습니다 꼿과 때와 사람과의 呼吸의 一致——아아 이것이 所謂 파ー레가 憧憬하든『보담놉고 完全한 瞬間』일가요 내마음은 나도 몰으는 동안에 마리아처럼 눈물갑고 合掌하고 잇섯든것이외다。

○

이러한 展望은 반드시 엄숙한 宗敎的인 民謠를 낫는法이다 나는 時日關係로 近方의山村에 民謠를 차자내지못하는것이 恨이엿다。다만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말고 七寶山 開心寺에 올라가보소 라고 중얼거리면서 멀리눈을 들어 南과北을 바라보앗다。南은 吉州 北은 明川。汽車가업슨 녯날에는 이 山路를넘어 麻布장사들이 서울로갓다。『七寶山開心寺에서』

이쪽은 明川이오
저쪽은 吉州
麻布장사 우리님이
넘나드는길

七寶山 開心寺에
왜오섯수이까나
님의장사 잘되라고
기도를왓지

○

내려다 보이는 吉州明川— 이곳사람들은 確實히 平和를맛보고잇다。生活을 깨뜨리고잇다。下山道中에 나는 담배봉을피게로 火田民을 찾아보앗다。『댁은 여긔서 얼마나되나요』『한 三十里되죠』 나는 놀랫다。아침마다 三十里를 걸어와 耕作하고 또 三十里를 걸어 歸家한다는것이다 내가 三等道路에 돌아왓을때 그는 호미로 김을매며 그럴듯하게 노래를 시작하얏다。

一年 열두달 지은농사
北間島 갈車費 不足이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세

(七、二〇—明川寶泉洞에서)

讀者社交室

▲數年來敎授의 經驗이잇사온 專門校生이온데 家庭敎師나 通勤敎師되기를願합니다。中學生이나 普通學校兒童이나또한 學年의高低를不問합니다 報酬는敎授結果를보아서주시는분의 任意決定에 매김니다 有意하신분은 左記處所로一葉을惠投하시압 京城府昌信町一五一의一六 尹方 李南海

▲七月十六日姜敬愛氏住所를 뭇는 이게답합니다 姜敬愛氏는 只今間島 龍井市에잇는데 氏의男便되시는 張河一氏가 龍井東興中學校敎育者로잇는이만치 直接龍井東興中學校로알어보시요 書信때위도 學校로하면됩니다

▲小生은 當年二十一歲靑年이온데 普校를暖業生으로 맛치고 獨學漢文工夫를 三四年하다가 中止하고잇스나 職業이無하와 諸兄任게願합니다 或司法代書士나 其他書記職業길이라도 無妨합니다 滿洲朝鮮昭 一讀者

▲讀者諸賢中『文敎의 朝鮮』昭和二年一月號(童話傳說號)를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는분에게 相當한謝禮를 드리겟습니다 慶北 崔生 記

慶北尙州邑西門外里普通學校 金應鎬

▲滿洲國에게신 同胞여러분께 社交室을通하야 뭇잡니다 本籍을 朝鮮忠北淸州에두고 商業次로滿洲國으로가신 唯一한親舊가잇는대 姓名은 白弘基(三五歲)올시다 그분은 社交室或은 左記住所로 下敎하야주시엿스면 謝禮를 올리겟나이다。 朝鮮京畿道安城邑西里 張完淳

▲小生에게未知의 詩人으로만 흔作品을 全羅南道麗一信氏書肆面로 慶州의李起秘氏며 元山의朴永夏氏 其他數三氏게만흔감사를 드립니다 要하옵기는 生이 要求하는것은 第一獨唱曲 流行曲 民謠의順序로 歡迎하오니누구서든지 作詩下送을 伏乞하나이다 目的은作曲의 商品化以外에 作曲集을圖謀코저하나이다 各詩人 案下 仁川府栗木里四五 李彥哲

▲石學順姉氏게 浦項永興學校에서書信을傳하신後 四年間이나 消息이업스니 엇지기댈이지안켓습니까 其間慈親은安寧하시온지요?前日弟의住所를所持하여섯거든直接消息을傳하시고 不持하얏거든 本欄을通하여 現住所를아르켜주시요 諸者中四年前大邱女高卒業後 浦項永興學校敎鞭을잡으시든(其後經過不知)石學順氏의住所를 本欄을通하여下敎하여주시면 感謝不已이외다 大邱 ○慶

▲朝鮮劇界에 諸先生任 小生은當年二十五歲靑年이온대 大都會地로만다 彷徨은하엿사오나 初面이올시다 小生만한人物도 劇界에 入社할수가 有할가요萬一 有하다면 引導하여주실수업읍니까 本社社交室을 通하여 通知하여주시면 卽時上京하겟읍니다 咸興軍營通濟化內 宋正憲

▲本人은 本來藥業을 조와하는중입으로 多年間藥業에 研究를하고잇습니다。今春에 某藥學會社에 入社할라고 하엿다가 事情에依하야 入社치못하고 只今까지 집에서研究中이오니 讀者여러분中에 藥業에취미잇는분이게시면 가티研究를바라나이다 京城府[illegible] 尹敎正

▲저는 元來배움에 弱하야 목下學中이오니 文學을좋아하시는 분이 게시면 本社交室을 通하야 下敎하야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咸南一生食者에게 貴函朝鮮保康會는 京城府新設町四〇七番地에 잇습니다 生食에 對한 書籍으로는 同會發行左記書籍이 가장參考될줄로思합니다(京城朝鮮保康會)
一、新生食法指導書 一部六錢
一、實驗生食法 一冊三十錢
一、寫眞文獻 一冊五錢
一、救急辭典 一冊二十錢

▲小生은今年十六歲되는 少年이온데 至今醫藥을 研究하나家庭形便으로 上級學校는 갈수업서서 집에서혼자 練習하며研究하오니 어느분이시든지 醫藥에關한 書物을가지신분이나 發行所住所를아시는분은 本社交室로나左에住所로 下敎하여주기를바랍니다 (咸北行營四七〇 金文燮)

▲本人이左記冊을 購入할터이니 所持하신분이게시거든 通知하야주시오
漢淸文鑑 十五冊
杜詩諺解鐵鑄字本全帙缺本이라도
…吐圖 靑目錄
高麗板如何한冊이든지
高麗史 白紙板本
京城府寬勳町一一八 李殷錫

▲金鍾國、金千斗、兩兄에게、前日光州에서 섭섭히作別한後兩兄의消息듯지 못하오니 답답하나이다 길게쓰지못하오니 兩兄의住所나알려주소서 弟는只今木浦에서『스라디오』生活을 하고잇습니다 社交室을通하여서나 左記住所로알려주시면 고맙겟읍니다 木浦府南橋洞 소라디오商和 金彰春

▲朝鮮辯護士試驗獨學受驗生或은 獨學合格者諸氏에게 問議합니다
1、貴下들이 常用하시는辯護士豫備試驗에 關한準備는 如何한冊을使用하시는지요 詳細히下敎하시오
2、本試驗에關한基本書는 무슨冊을 受讀研究하시는지요 慶南統營 知空

▲在東京讀者諸氏게 告하나이다 生의父親姜朢生(當四十四年)氏가 只今으로부터 約二十年前故鄕인慶南密陽郡上南面을떠나 日本內地에 渡航하신후 土木請負에從事하신다하시드니 至于今從無消息하야 人子之情苦悶하든中昨年度에 風聞하온즉 東京等地에서 보앗다하오니 住所를 未知하올뿐外라 本人은約干의蓄財가잇서 父子相面코자하오니 諸氏中或아시는분이게시옵거든 本社交室又는左記住所로 直接通知하여주시면 厚謝를드리겟나이다 慶北高靈邑內 大昌洋服店內 姜誠春

新刊紹介

▲全鮮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集 昭和十二年度準備版、各中等學校長所感記載、第一附錄 小學校 普通學校兒童受驗年表、第二附錄 模範答案集(別冊)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本町二丁目一〇 日韓書房 振替京城一一五番 定價一圓 送料二十八錢

▲新榮養科法附榮養學講座 李瑛萬著(內容) 榮養問題에對하야 榮養素의 化學的性狀과 任務 食品의榮養價値 酵素及消化作用 榮養素의新陳代謝 에네르기ー代謝 人體蛋白質要求量 朝鮮榮養料理製法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社稷町二二〇 京城榮養研究所 振替京城二五六〇三番 定價七十錢

▲青年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青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基督敎報 第六十七號(週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部五錢

▲フランスのファッショと人民戰線 勞働雜誌パンフレット第一輯 發行所 東京市四谷區七軒町二一 勞働雜誌社 振替東京八二六〇三番 定價三十錢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結核‧肋膜炎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구아야콜부루토ー제

스포ー츠와結核
結核患者가過度의運動을하면心臟及肺臟은健康者에게比較하야强烈한活動을하는結果罹患肺部의抵抗力을減弱시혀서더욱더욱罹患部의擴大를이르키어結核毒素를生體組織의全部에侵入식혀物質消耗를增大하야漸漸惡化식힙니다、

어럴때의對策
으로서는絶對安靜을主로하야抵抗力의增强과에네루기ー의補給을爲하야구아야꼴부루토ー제의適切한服用은榮養을充實히하야間接으로治癒를促進하기때문에자못効果的입니다

大瓶 四圓三十錢
小瓶 二圓六十錢

醫學博士 小田俊三先生著「呼吸器病の養生法」申込次第進呈

GB 116

童話野談 (八五)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신의잇는련에 (十二)

그놈은 두재상은 나라를위하야 충신편으로 갈길과 조상을 위하야 효도편으로 갈길이 아직도 멀엇거늘 몸먼저 늙은것을 한탄하는중 흉흉사양으로부터 드문 드문 장단이 느린북빡소리와 북소리가 두귀에 한적하고도 신령스럽게 들려오니 이심변전에 그귀이하게 피어나올거리든 꽃을 보는것과 정성스럽게 북전에 불공을 올니든 옛일이 새로워젓다.

그래서 안개속에 잠겻든것과 가튼 몽롱한 정신이 따시금 왜라하야지며

『아마도 신명(神明)이 무심치 아니할터인데。』

하는 생각이 살어나며 몸이다시 젊어지는것도 갓고 끈어질든 압길이 다시 이어진것도갓럿다.

그런생각이 잇슨후 그두재상은 과연 압날의 경사가잇기를 또한 축원하얏다.

때는 바로 칠월칠석날의 새벽이엿다.

그 두놈은 재상중에 한재상의 집에서는 사내아이의 우름소리。또한 재상의 집에서는계집아이의 우름소리가 그날 그새벽의 공중에 울니엇다.

그 두놈은 재상은 각각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 깃븐비츨 띄우고 서로 치하하기를 조금히 굴엇다.

그런중 더구나 두아기의 생년、생월、생일、생시、그사주가 똑가튼것이 얼마나 귀이타하리。

『아아。이 두아ー는 비록 성이 달은 따가문에 각각 래낫스나 그근본은 분명 한줄기에서 두가지로 핀 그귀이한 도리화가 변하야 태어난정。허물며 칠월칠석 똑가튼시에 태어난것은 이것이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서로 만나게되는것과가튼것。처음의 점지된 중조로나 나중의 태어난사실이 변할수업는 천생배필。이것이 첫재는 상제께서 두놈은종을 불상하 역이신것이오。둘재는 부처님께서 두놈은종을 도위주신 데자대비의은혜。그러커니 이두아이는 이자리에서 배필의 가약을 미리 작정하야 두는것이 천리(天理)를 따르는것。』

하고 그 두놈은 재상은 그두아기의 가약을 겨우 례물만벨루 주거작정하얏다.

그리고 두아기의 일홈을 지을새 아들아기는 백운(白雲)이라하얏스니 그것은 하놀과 땅이통함에는 힌구름을 경한다는 뜻(非天地、雲彼白雲)을용한것이오 그딸아기는 제우(際雨)라하얏스니 그것은 하놀과 땅을짝하매 그두편을이 극진하다는뜻(配天地、際雨)을 용한것이니그 글자와 음운 비록 다르나 천생배필이라는 뜻을 취한것은서로 틀림이업섯다.

밀노부러 두놈은 재상은 더욱더옥 가까히 지내며 두아기에 대해서 귀여운것이 잇스면 두재상이 다가티 깃버하고 걱정스러운일이 잇스면 두재상이 따갓치 근심하얏다.

그뿐아니라 그두아기의 자라나가는것을 맛치 자랑이나하는듯이

『벌서 뒤치오!』
『벌서 기오!』
『벌서 안소!』
『벌서 것소!』

하며 두 놈은 재상은 서로한나는때마다 두아기의 잘아나는양을 낫낫치 들어 말하얏다.

이에 백운(白雲)은 잘아갈사록 그장대한 체격과 그용장한 귀상이 산악(山岳)에 비하게되고 제우소저(際雨小姐)는 잘아갈사록 그 화려한 용모와 그 며성스러운 긔품이 모란(牡丹)에 비하게되니 백운을 길아하는 그놈은재상은 작난하을 두엇다 자랑하고 제우소저를 길하에는 그놈은재상은 작난을 두엇다고 자랑하얏다.

두 놈은 재상은 어떠한 아들자랑。딸자랑을 서로 지지안케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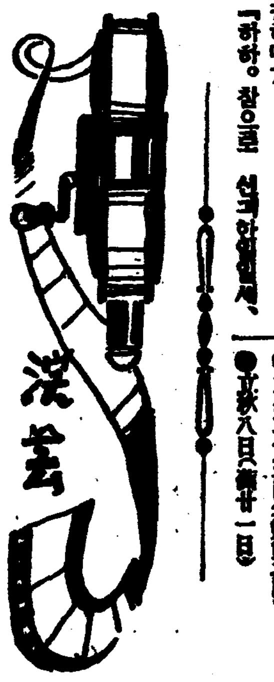
『하하。참으로 선과한일일세、신과한 일이어。아이들이 다 아들이여드면 그배필을 어데서 구하며 딸이 다 딸이여드면 그짝은 또한 어되서 구하단말가。』

하며 그두재상은 두아이가 날때로 말니 태어난것을 갖추독선하게 생각하니 그생각도의 서 짓붙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희구리의 생각이엿다.

曆

八月九日(日)
陰六月小(廿二日)
癸亥·水·尾宿

●來日에 末伏
●大暑二十三日(陰初五日)
●立秋八日(陰廿一日)



名優의一代記 (二)
윌리암●포엘의告白

그때『깃슨』의 相對役은 로날드·콜맨이엇다。그 撮影에는 相當히 만히 『미라노』로 가는데 로날드와 내가 先發隊로 떠낫다。

로날드는 一年쯤前에 『화잇·시스터』의 撮影을 爲하야『로마』에서 그와 갓치 잇섯다。그래서 그만 한께 가면 伊太利語도 問題 업다고 생각하얏든것이다。그러나 目的地에 나리고보죽 그의 伊太利語라 조금도 通치를 못하야 약단이 낫다。伊太利語速成法等의 冊을 사다리어 工夫를 한다고는 하얏서도 문지기에게 쫏겨나고 못들어갈번하기를 한두번 아니엿섯다。

言語 不自由는 그래도 참겟지만은 二週間 三週間을 거다리어도 우리의 一行은 오지안코 旅費는 차차 떨어저 간다 이러다가는 큰일이라고 나포리支社로 電報를 처도 消息이업고 倫敦支社로 電報를처도 消息이 업고 맨나중 紐育本社로도 처도 역시消息이업섯다。우리들은 한숨을 치쉬고 나리쉬며 數日을 보내는中 우리의一行이 到着되는 同時 세곳으로부터 一時에돈이 드리닥치엇다

그 撮影을 마치고 聖林으로 돌아와서는『삐브·다니엘』의돈에 실증이나서『리차드·딕스』의『劍難女難』『셀다·그래이』의『南海의 아로마』에 助演하얏다。一九二五年十二月에는『파라마운트』와 長期의契約을 맷게되얏다。

그後『불만』主演의『보체스트』와 가튼 名作도 내엇스나 아모래도 내이름을 참말알린것은『카나리아殺人事件』『베손殺人事件』미례『그린家의怪劇』『똑·반·다인』의 探偵劇의 主演物들이다

『파라마운트』와의 契約이 끈허진뒤『와나』로 와서도 그前의關係로 因하야 가끔 探偵劇의主人公이 차례로 넘어 온다。『와나』와의 契約이 滿期된뒤 나는 다시 自由契約으로 지내려 하얏스나『男子世界』『그립자업는男子』以外 거의 메트로 專屬처럼 되얏다.

나는 一九二〇年 最初의 안해와 結婚하얏다가 一九三〇年 離婚하얏다。職業이 다르니까헤진以後 別다른 理由는 업다。離婚하든 바로 그해 나는 뒤달롱안 休暇를 어더가지고 놀엇다。여기저기 旅行을 다니다가 돌아오죽 突然 나는 女俳優한사람을 紹介바덧다。

『이는 메스·롬바드요、당신의다음 作品의 相對役이요』라고

카롤·롬바드를 내가 만난것은 그때가 처음이다。나는 만나는결 다섯시간을 거리지내고 헤여지는 마당에 求婚까지 하얏다。그의 對答은『노』엿섯다。그다음도 불『노』엿섯다。

그러나 그後 六個月뒤에『예쓰』내나히 三十八歲 그의 나히『二十二歲』때 結婚。

그러다가 一九三三年 八月에서로 헤저다。現在그는 내안해는 아니지만은 바셀메스와가튼親友다。

今後 내가 獨身으로 지낼지 結婚을 할지 그런것은모른다。그저 過去의 일만은 얼마든지 말할수잇다

아름다웟든그때

佛蘭西에서 最後로 남기고 온 시모네·시몬의 映畵로 監督은 마루·아레그레요 共演은 피엘·오몽

飄然한 이姿態—

最近 聖林의女優間에는 自轉車와 함이 大流行이라 그中에도 自轉車는 더 甚하다고한다。여기저기서 스포스사쓰바람의 美人들이 페달을 돌리고 다니어 젊은사람의 魂을 사르는中 그中에도「폭스」의 新人인 로지나·로렌스孃은 自轉車우의 스타일이 유난히 아름답기로 有名하다。

八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이야기 尹石重
◇同七時 復習時間 市川榮三
◇同八時 『國語』週間時事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노라보세 二、失春曲 三、울니시면 四、青春의樂士 五、大同江노래 六、傷浪의시내 盧碧花
◇同九時 神話(星座로맨스) 伴奏DK管絃團 一、處女 二、小熊座 李素言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黃鶴詞 二、白鷗詞 金花香 徐山玉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齋藤秀平
◇同七時三〇分(東) 浪花節 黑髮讀 木村友衛
◇同八時一〇分(東) 舞臺劇 市村羽左衛門 市川다가시市
◇同九時 時事解說
◇同一〇時四五分(自) 올림픽大
◇同一一時三〇分(至) 會放送『百米自由型準決勝』實況(第一放送에依함)

九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 鼓手 丁元俊 朴秋月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五〇分(東) 野球試合實況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
◇同六時三十分 맨돌링合奏 이탈리안·만돌ー 一、유쾌한대장깐 二、西班牙小夜曲 三、시치리아ー나 四、쿠쿠월쓰 五、키스엘 六、靑春의가슴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人生과목탁" 吳基先
◇同八時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平壤念佛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二〇分(東) 빠이올린獨奏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華容道 方應敎
◇同九時一五分 빠ー스트개 申不出 杖鼓 韓成俊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洋琴과大笒 一、平調會像 二、淸樂鏡入(大笒獨奏) 三、羽調鏡入 楊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一〇分四五分自 一二時至 올림픽大會實況『四百米繼走決勝』『女子高跳決勝』『마라손出發』『百米自由型決勝』(第一放送에依함)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午後〇時三〇分(奉天) 趣味講座
◇同一時二〇分(名) 明淸樂 森田五郞
◇同一時四〇分 歌謠曲
◇同六時(東) 合唱과獨唱 伴奏 JOAK唱歌隊
◇同七時三〇分(臺北) 臺灣音樂 陳印、河長生外

十日(月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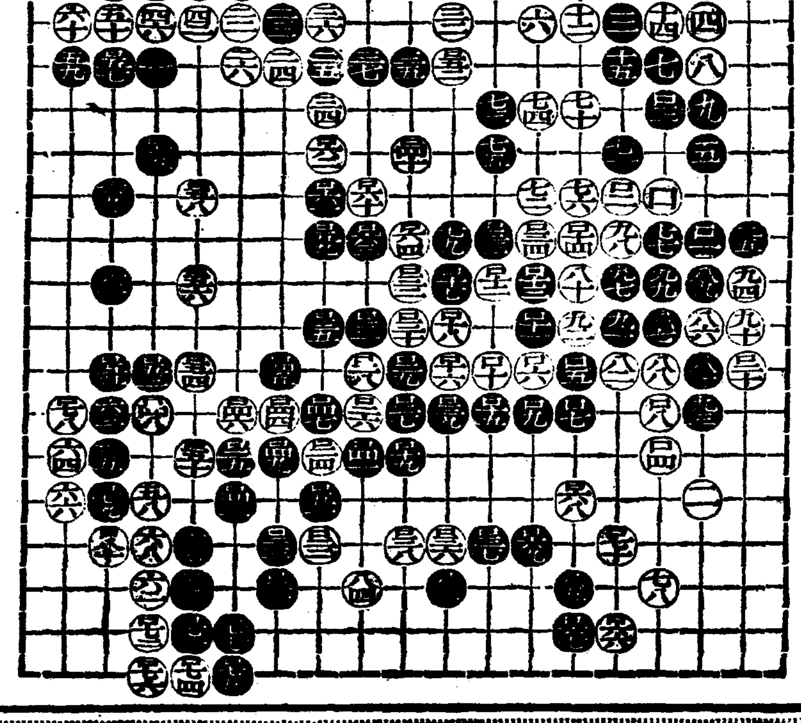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自) 올림픽大
◇同七時〇〇分(至) 會放送『마라손到着』『八百米繼泳豫選』(레코ー드서實感)(第一放送에依함)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指揮樂長 內藤淸五
◇同一時五〇分(東) 野球試合實況(豫備日)
◇同六時三〇分 노래동무(一) 一、소낙비三兄弟……金泰哲作曲 二、고향하늘……朴泰俊同 三、제비마중……金泰哲同 朴景姬 外實演兒童數名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 申泰翊
◇同八時 滑稽講座『米穀統制에對하야』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三〇分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漢江水打令 四、사발가 五、興打令 六、노랫가락 七、창부타령
◇同七時五〇分(東) 뉴ー스演藝
◇同八時二〇分(東) 바이올린
◇同八時五〇分(東) 納涼이야기 伊庭孝
◇同九時 詩調와誦書 一、詩調 二、藤王閣序 細笛 申海中 金昌植 鋼琴 申忠根 張玉花
◇同九時一五分 唱劇 春香傳中 "新官到任하는때" 丁元俊 吳太石 金世俊 丁南希 趙素玉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鶴野收
◇午後零時五分 吹奏樂
◇同六時 이야기 森下勘次郞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演 栗岩英治
◇同七時三〇分(長) 趣味講演 野村戒三
◇同八時(大) 涼味通信 大阪市觀光艇水都號에서中繼
◇同八時三〇分 室內樂 피아노 JF JB스튜데이 바이올린 RH부라이스 비올라
◇同九時(東) 浪花節 木村松太郞

圍碁對局譜 (本社主催)

— 9 —

白 權業鄒
黑先 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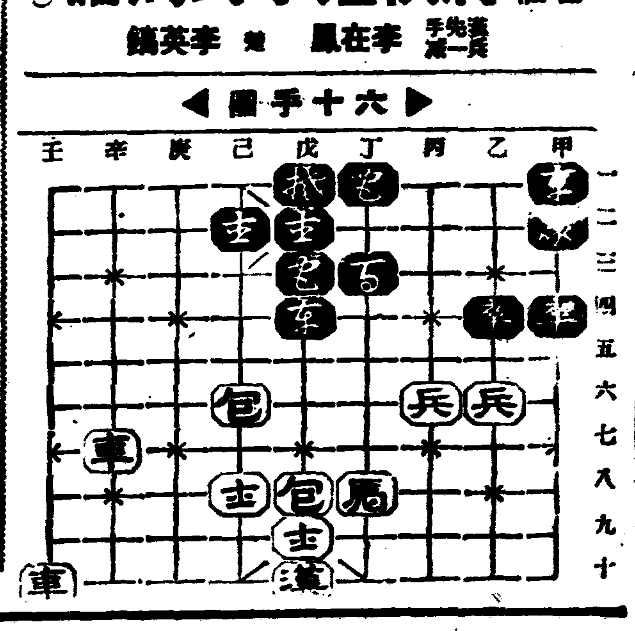
●一六一	丑의八
○一六二	丑의七
●一六三	子의九
○一六四	癸의九
●一六五	巳의七
○一六六	戊의十八
●一六七	己의十八
○一六八	己의十五
●一六九	庚의十六
○一七〇	戊의十六
●一七一	辰의十八
○一七二	巳의十八
●一七三	辰의十七
○一七四	辰의十九
●一七五	卯의十九
○一七六	巳의十九
●一七七	卯의十八
○一七八	未의十三
●一七九	午의十五
○一八〇	午의十六

變幻文氏評日 全局大勢가 旣已平定하니 守成待敵이다 白은 戌의十八 巳의十五가 最緊하고 黑辰의十八이 其次는된다 아직 計目多少가 末端收拾에 잇스니 落伍로생각지말지어다

將棋名手對局譜 (七)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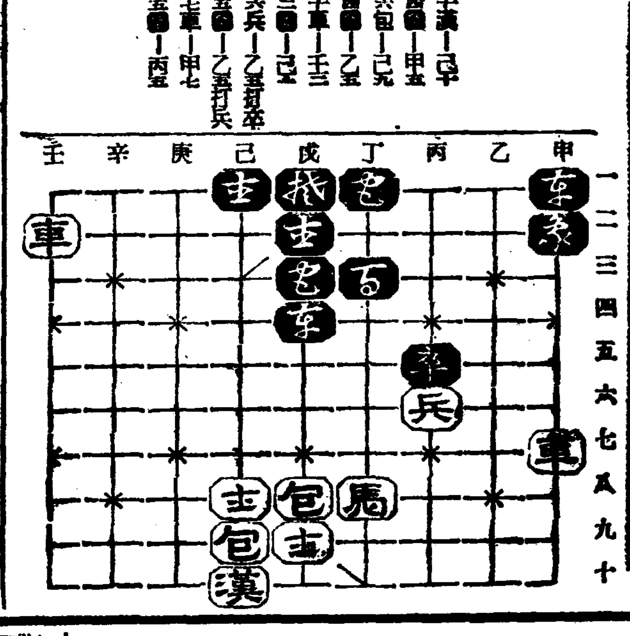
漢 手先 李在鳳 對 李英鎬 楚

◀六十手圖▶



◀七十手圖▶

戊十漢—己十
甲四[illegible]—甲五
己六包—己九
乙四[illegible]—乙五
壬十車—壬三
己三[illegible]—己五
乙六兵—乙五(打卒)
甲五[illegible]—乙五(打兵)
辛七車—甲七
乙五[illegible]—丙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飮食店의人氣와稱讚을
아지노모도를 끈임없이
사용하는집에 몰인다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 朝鮮日報社釜山支局電話二一八九番

●感嘆!!感嘆!!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노ー신)이다●

優良新鮮—비타민豐富
絕對信賴—賣行最速

森永ミルク

森永煉乳株式會社

大掃除의必需品!

金鳥かとり線香本舖
大阪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第三次共青事件全貌
咸州와興南全幅에 赤勞와赤農樹立
◇……豫審終結書에나타난 —그들의活動內容—

【咸興】작년봄 반제(反帝)데 이를전후하야 함남도 경찰부의 지휘를바더 함흥경찰서에서 함주군내를 샅샅이뒤저 무릇세번에나누어 열네오십여명의 청년을 대량검거하야 당시세상의 이목을 총동시키든 소위제삼차 공산청년동맹(第三次共靑同盟)사건 주문정(朱文楨)등 사십구명은검거된지 열달만인 지난칠월말일로 예심이종결되야 동월모다 공판에 붓기엇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들의 종결서(終結書)는 제작정에 겨우작성되야 각피고들에게 송달되엿다 이제 이렷세를경동시키든 대사건의 전모(全貌)를 실고잇는 예심결정서의 내용을소개하면 다음과갓다

被告全部 治維法違反
▲韓鑛煥 ▲李植宅 ▲李炳權 ▲韓致淵 ▲韓璋佐 ▲朱文楨 ▲韓永石 ▲李範軾 ▲宋命鎬 ▲崔敎根
出版法違反 ▲韓植宅 犯人藏匿
▲朱文楨 犯人藏匿未遂

二次檢擧에不屈 三次로共靑을再建
七個面四十八個班組織

조선공청동맹(朝鮮共靑)이라는것은 지소화오년도에 국제공청동맹대회에 출석하얏다가 조선에 공청동맹을조직하라는 중대한사명을띄고 조선에돌아온 강목구(姜穆求)정태옥(鄭泰玉)의두명이서로 손을나누어 전조선을 망라하야 최고한공청(共靑)조직을하얏스나 소화칠년에함경에대량검거되엿고 그후 소화팔년오월에다시 그농계조직인 최경덕(崔景德)김재용(金在鏞)등이 검거를보게되야 거이괴멸의 상태에빠저버렷다

이러한때에 제일이차 공청에 중요관계로 량차검거에 모다교묘히 피신하야단이든 주문정(朱文楨) 정경록(全京祿)등이 고향인함주군상하조양(上、朝陽)천서(川西) 면등에서 린근각동리를 중심으로하야공청반(共靑班)과농조반(農組班)을조직하면서반원획득에 노력하는일방 귀회만 잇스면 함주평야(咸州平野)를단위로한적색농조(赤色農組)를 재건할편하려고애써왓다

이러케 천서상하조양의 각면을 무대로 반원획득에 노력하는일방 도주서(州西)련포(連浦)삼평(三平)등 각면에도 중요분자를 물색권유하야 농조반(農組班)조직의 하부공작을하고잇섯다

그리다가 운동이 점점구뎌감으로 구년구월이십칠일 상조양면봉명리(上朝陽面鳳鳴里)리병권(李炳權)의 집에서 한식택(韓植宅)한치연(韓致淵)등 수명이모아서 함주평야××적농조조직준비위원회 (咸州平野××農組組織準備委員會)라는 결사를 조직완성하고 아래와가티

總責任兼出版部責任 韓植宅
組織部 李炳權
基金部 韓致淵

의부서를 결정하고 운동방법으로는 분회(分會)지부(支部)를각면에두고 다시각동리에 농조반(農組班)과 공청반(共靑班)을조직활동하기로 하얏스며 다시일체로지를통수하라는등의 오개조「스로간」을 수립하얏다 그리하야 하부조직을 완성하는일방십면팔월오일까지 전후십오회나위원회를 개최하엿스며 천서(川西) 천원(川原)주서(州西) 주북(州北) 상하조양(上下朝陽)삼평(三平)등 칠개면에 사십팔개의적농(赤農)반을 조직지도하얏다

◇……右로부터 韓植宅 韓鑛煥 朱文楨 韓武國 韓昕鎬 李範進 韓致淵 李炳權

◇……墳墓로 僞裝하야 埋藏한 證據物을 發掘한것

定平農組도指導 興南엔赤勞組織
五千職工과自由勞働者를赤化
可驚할그들活動機構

이러케 함주군(咸州郡)을 모조리적화하는한편 정평군(定平郡)농조재근도 손을뻐처 동농조덕흥지부(德興支部)를 지도하야왓스며 또흥남조직(興南組織)회사직공들을 획득하라고 주문정(朱文楨)은 륙차 그직공김종화(金宗和)리범식(李範軾)을 획득하야 범직적로(赤勞)의 하부공작을하얏는바 그것도진변오월이십오일에 이르러서는 구체화하야 동일 흥남읍구룡리 (興南邑九龍里) 김영훈(金英勳)리경덕(李庚德)의집에서 한영석(韓永石)리경덕(李庚德) 등 수명과모아서 흥남조직회장직공과 흥남에잇는 로동자들의 획득을목표하고 흥남적색로동조합준비위원회 (興南赤勞組合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다음과가티

總責任金英勳 出版部韓永石 興南製鍊所責任李庚德 朝窒會社責任李範軾

의부서를결정하고 활동하야 자유로동자(自勞班)을 조직확장하고서는 모다총검거를당하엿다

◇被告의住所氏名

咸州郡下朝陽面仁興里六一 農 韓鑛煥(二六)
同郡川西面雲洞里三七二 農 徐潤奎(二〇)
同郡西湖面鳳興里 農 韓昕鎬(二七)
下朝陽面岐會里一八二 農 朴重善(二七)
上朝陽面中坪里一九六 農 朱奎燮(二〇)
同面鳳鳴里六四一 農 李璋根(二六)
下朝陽面仁興里二〇三 農 金京錄(二七)
上朝陽面中坪里二一九 農 朱奎鎬
川西面上東興里一七三 尹三鳳
川北面興蓮里九三 農 韓植宅
上朝陽面鳳鳴里六八一 農 李炳權
同 六三〇
川西面雲興里二五一 農 韓致淵
川西面元上里一一五 韓武國
州西面下九里一七三 韓璋佐
州西面興南里三〇〇 李範進
同 二三七 柳瀚煥
同 一九九 文仁卓
州西面八里二〇五 柳東杰
州西面下九里六二 金在祿
同面塩興里三七四 韓道吉
同面下九里一七八 崔時吉
川西面雲洞里二四〇 韓炯
同面德興里二一四 朴奕劉
同所 二一四 李吉相
同面雲峰里二四二 尹嘉鳳
同面上雲興洞一八二 金奉植
雲興里一四八 韓俊煥
雲洞里二四〇 韓利實
同所 三四二 金萬石
同所元忠里六一 韓鍾煥
定平郡朱伊面東坪里 金三龍
川北面百興里一七四 申榮人
同所七一 任孝鎬
上朝陽面鳳鳴里六七二 崔光烈
川原面上中里 金弘建
川原面德成里三四 元會鎭
川西面新興里二九 朱文楨
興南里九龍里二一五 宋命鎬
雲南面雲中里 李培鎬
定平面弘德面元上里一七四
職工金英勳
定平郡雲南面元上里 金龍瀚
興南里九龍里一〇 職工李範軾
雲南面雲中里 勞働韓永石
州西面雲興里二五 李庚德
定平郡府內面興德里三〇 金宗和
江陵郡新昌面德項里 崔敎根
雲南面雲中里 文金根

機關紙"農新聞"을 七回發行配布
記念日마다檄文을撒布

이러케 대량적으로 반원을획득하는 한편 그획득한반원들을교양하는일방또한 가장광범위로동조측면에게 공산주의의식을 주입시키기위하야 전후칠회에걸쳐 농민신문(農民新聞)을 수십부식 발행하야 교묘한 련락으로 배포하얏고 또 구년팔월 을 칠월로서야(露西亞) 혁명긔념일과 그농집변도의 오월「메―데―」등에는 함주군운남면운중리 (咸州郡雲南面雲中里) 범판표현(裵六) 부근에 『아지트』를 정하고자자 등사판을 사용하야 일회 근천여매식다량발행하야 함주군내각면가리에 고루빠짐이업시 하로밤동안에 전부흩은 벽기룸데부처다던지 혹은 사람이면허당미는곳에 산포(撒布)하얏다

生活難을悲觀 八十老婆自殺

【寧邊】 팔십로파가 자애스러운 아들의생활난을 비관하고 죽엄으로청산한 듯기에도 가엽한사실이잇다 지난팔일오후두시경 령변군녕변면동부동 (寧邊面東部洞) 고용인 전종길(全鍾吉)의 모(母) 최씨(崔氏)는 녕변읍에서 약일리가량상거한 구룡강 (九龍江)에서 투신자살한것을 왕래하든사람들이 발견하고 곳소관녕변서(署)에 급보한바 이급보를 바든 동서에서는 즉시현장에 가서 검시(檢屍)하는동시에 자살의원인을 조사한결과 엽세적자살로 판명되엿다하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탐지한바에 의하건대 전씨최씨의 아들 종길은 평소부터 노모에게대한 효성이지극하고 성경이온순하여 편모를모시고 남의집 고용사리를하여 그날그날 생애를하여오든바 로모의아들에대한 자애스러운 심정은 날노기퍼가고 귀여운아들이 매일가티로동에 골몰하여도 오히려 생활이곤난함을 비관하고 그와가티 자살을한것이라한다

學父兄에音樂
安岳學友會主催

【安岳】 외지에나가 유학하는 학생들의 결성된 안악학우회에서는 학교위안을 목적하고 각방가옥에 봉사주최인 음악대회에 일반은 연결하서 김이번(金[illegible])(바이올린)군 미걸 김산옥(金[illegible])(聲樂)양 김평순(金平順)씨등을 초빙하야 음악대회를 오는 심일밤 팔시반 안악읍 안신장에서 주최키로되어잇다 특히 음악대회에 입선된 제군들의 출연이 안악으로서는 처음인듯이에 일반의 인긔가 비등하여 당일의 성황을 손꼽아 기다린다 고한다

科料完納不能으로 換刑者가續出

【元山】 최근원산서(元山署)유치장에는 과료(科料)를완납치못하야 유치장으로 들어가는자가 계속하여간다는데 지금 동서유치인 삼십여명중 십육명이 환형자(換刑者)라고한다 이러케 벌금자의 벌금을 못내여 그들은 이상하여외든지 업서서 고역을 귀하는남새나는 유치장으로 들어가서 피로를 [illegible]

本報記事보고― 幼園慘事에同情
碧潼金基磐氏特志

【碧潼】 평북벽동읍 예수교회(敎會)경영의 벽도사 김기반씨는 오래동안 중한병에 걸려 항상애독하든본보도 읽어두든그대로 한번도읽지못하다가 근일에는 병이 차도가잇서 싸어두엇든 본보를 읽게되야 평양유치원의 참변기사를보고 크게비감하게생각하고 금십원을 동정금으로 지난사일 평양유치원으로 보내엿다한다 씨는 일즉부터 자선사업에 열중하야 남의말을 빗갑하준다고 라며은 차저다 길러출가시킨녀자가 두사람이나된다 하며지금도 항상 자선사업으로 일생을 보내며 가난한 사람을 볼때마다 자비의 손을 펴는 동정의 자비심은 널리 알리여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繼續的인豪雨로 扶安에交通杜絶

【扶安】 지난 삼일부터 계속하야 나리는비는 작작 폭우로 변하야 도로에서는 부안―정읍간의 신태인간과 부안―김제간의 동이 두절되엿다한다

安州、平原兩地方에 旱害救濟土木工事
豫算總額約二十萬圓程度로 平南道에서準備進行

【平壤】 평남의 금번한재로 이앙을 전연하지못한 칠、팔천정보를제외한 대부분은 이번의비로 평년작이상에 달하는터이나 안주(安州)평원(平原)량지방에는 흉작을면치못하게되어 가을이전으로 한해에대한 대책을강구하지안흐면 안될 현상이므로 도당국에서는 준비를진행중인데 구재방법으로는 토목공사를 실시하기로되엿고 그예산은 대략이십만원정도로 되리라고한다

消防署昇格前提 大폼프車購入

【平壤】 회제만키로 유명한 평양부내의 소방그판인 평양소방대에서는 소방서로 승격을압두고 제방구、대원공사등 시설의 총경을향하여 진행중인데 얼마에 주문중이든 포푸자동차일대도 방금진남포에도착되여 실일경부터는 소방작업에 소용이되게되엿다 이번 구입한 새자동차는 포―드대형포푸차로 가격은 팔천원인데 재래의 포푸 자동차에 비하여 방수구(放水口)가 배나

地價高의影響으로 建築熱突然冷却
平壤府內의新改築모다激減
今年上半期의統計

【平壤】 평양부내의 작년상반기의 가옥건축건수는 신축(新築) 팔백칠십륙호 증축(增築)이백팔십팔호 개축(改築)심칠호이든것이 금년상반기에는 신축팔백삼십이호 증축이백팔십호 개축삼십오호로 신축과 증축이 훨신 감소되엿다 이원인은 지가(地價)가무섭게 놉기때문에 건축사업이 진척되지안흠으로 비싼 차지료를 지불하고 건축을하면도 수지가 맛지안키 때문이다 그이면에는 무섭게증가를보고잇는 인구를수용할 건축물이 현저에도 부족을 고하고잇는터인데 압흐로 금추(今秋)의차가난(借家難)은 가일층심각할것이추측되다고한다

青年鐵路自殺

【安州】 안주읍북송리(北松里)에 거주하는 함성철(咸星七)(二二)은 지난삼일 하오팔시경에 개천선(价川線)북송리(北松里)부근에 차가달아나는 철로에 뛰어들어무참하게 세상을 떠낫다는데 그는 변변한일도업시 처자를 다리고 매일 곤궁하게 그날 그날을 근근이 살아오든바 지난팔일도 여전이 품파리를 갓다가 날게 들어오는길에 어떤동모와 술을 약간마시고 집에를 나왓다고한다 집에 어머니는 아들의 술취한것을보고 다소책망을 하엿든데 술에 흥분되엿슴인지 평소에 온순하고 효성이 잇든 그는 바덧든밥상을 집어던지고 그길로 뛰여나가 그와가티 자살을하엿다고한다

扶安弓術大會中止

【扶安】 변산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조합주최로 전조선 궁술대회(全朝鮮弓術大會)를 개최일부터삼일간 개최하려 하엿든바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를하게되엿다한다

農村의工業化反映 工産額은逐年增加
黃海道內의昨年一年間産額
三千七百萬圓을突破

【海州】 재래로 농산업을 가장 중요시하여오든 황해도지방에도 도산업과(産業課)의 지도에 의하야 공업(工業)방면으로 눈을 돌려 근년에이르러서는 현저한 진전을 보이고 잇다。 산업과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중의 중요공산액(工産額)은 삼천칠백삼십칠만칠천이백팔십칠원에 달하며 그중가장큰 수자를 점령하고잇는것은 강철(鋼鐵)과 선철(銑鐵)이며 그다음이 양조품(釀造品)해탄(骸炭) 고제품(藥製品)탄건류품(炭乾留品)곡분(穀粉)견사류(絹絲類)면직물(綿織物)등의 순서인데 중요한공산품명과생산액은 다음과갓다

鋼鐵	九、一八一、六五〇
銑鐵	六、一七八、〇九一
釀造業	四、七一九、七一六
骸炭	二、九九八、一九七
藥製業	一、二二九、二九二
炭乾留業	一、一六五、一八八
穀粉	九三五、五三五
絹絲類	八九八、六七九
綿織物	五九一、〇六五
絹織物	三七三、一九八
木製業	二五五、八六五
陶磁器	一五三、四二三
農具類	一二三、五五五
煉炭	[illegible]
其他	三八九、四〇九
計	三七、三七七、二八八圓

岩石의轉落으로 六歲女兒의慘死

【熙川】 희천군진면마선동(熙川郡眞面馬船洞)에서는 지난세며아가 버지 뫼밀밧 가는곳에 놀러갓다가 굴러나리는 암석에마저 즉사하엿다는 듯기에도 참혹한 사실이 생겨 향간의 화제거리가되엿는데 이제 그자세한내막을 듯건대 전긔마전동에거주하는 최원봉(崔元鳳)이가 모밀밧흘 갈려 부근산복에 올라갓던바 그의딸최언년(六)이는 아버지 밧가는딋헤가 놀고잇던중돌연 굴러나리는암석에마저 즉사하게된것이라는데 화전을경작하는 산간지대에서만 볼수잇는참극이라한다

地方人事

▲岡本正道氏(前宣川殖銀支店長代理) 今般京城貯蓄銀行本店係

沙里院
全朝鮮籠球大會
▲時日 八月十一日午前十時(雨天順延)
▲場所 沙里院德盛校코-트
◇主催 沙里院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沙里院支局

海州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九日午前九時부터
△場所 海州高普코-트
◇主催 海州體育會
◇後援 新聞記者團

이름모를버섯에 一家族七名中毒
泄瀉가甚하야生命까지危篤
開城府內國子洞에서

【開城】 부내국자정(府內國子町) 구십팔번지 석호여사는 엄작식의모친과 처자다섯식구는 지난팔일 오후륙시반경 그동리 국자동(國子洞)이라는산속에서 일흠도몰을 버섯을 따다 「번번」하게 먹다가 어쩌나 맛잇든지 전기작식의안해는 그동리집 김복순(金福淳)의모자에게까지 맛을보라고 갓다주워섯다는데 그후 한시간도채 못되자 일곱명의 두가족은 미은버섯에모다 중독이되여설사를하여 죽을지경으로 고민하는것을 그동리사람들의원과 조산의원 즉시 시내도립의원과 송악의원(松岳醫院)에서 응급수당을바덧다는데 생명이위독한 지경이라하다 그런데이버섯은 파리가붓기만하면 죽사하는 독소를가진것이라한다

楊平郡下公興里서도 毒버섯먹고中毒
其中數名은生命危篤

【楊平】 지난오일 양평군갈산면 공흥리(楊平郡葛山面公興里)김수동(金壽同) 김금칠(金今吉)두집에서는 산에가서여러가지버섯을 따다 동일오전십시경에이웃집에나누어주고 자기가족이먹엇다는데 이것을먹은 동리사람과 그가족들십여명은 전부중독이되여 수시간동안이나 기절이되여 누엇섯스며 그중심한 사람사오명은 생명이위독하다 이 급보를바든 양평경찰서에서는 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응급치료를하며 입원환자는 병원에 입원시키며 치료중이다그리고 동일 려주군금사면(驪州郡金沙面) 조병수(趙炳洙)은 양평읍시장을 오든도중양평군갈산면창대리(楊平郡葛山面倉垈里)부근 로상(路上)에서 졸도되여 수시간고민하는것을 부근사람의응원으로 공의의응급치료로 생명은구하얏다는데 이도자기집에서 버섯상을먹은 원인이라한다

普校兒童溺死
廣川서水浴하다

【[illegible]】 지난 륙일 오전십일시경에 장현군 웅천면 동문외 광천교변(廣川橋邊)에서 웅천공보교(熊川公普校) 사년생 수명이 목욕을하다가 그중에 곽동식(郭東植)이란 아동이 무참히도 익사하엿는데 그아이는 본시 극빈한 가정에서 자랏을뿐아니라 어머니도업시 외로히 그의 아버지미테서 자라면서 겨우 학교를 다니게된것이라는데 학교의 선생도 매우 우량하엿다한다

好壽女普同窓會

【開城】 개성부내 호수돈녀자보통학교(好壽敦女子普通學校)동창회는오는 십오일이라는바 장소는 호고강당(好高講堂)이라하며 회비는 십전이라는데 일반동창제씨는 한분도 빠지지말고 만히참석해주심을 바란다한다

愛慾의彼岸 【71】
李光洙 作
金[illegible] 畫

「그럿치안루!」
하고 더 말을 하라다가 문엽은 제가 은주에게 대하야 취하는 태도를 생각하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앗다。
혜련은 호젓말 모양으로、
「아마 설은주씨는 내 배필이 되기에는 넘어나 놉흘는지 몰라。 그이는 범상한 사람은 아니것 것태、분명 그이는 비범한 사람야。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해두 알만해두 그저 평범한 게집애 여든 암만해두 그런가바」
하고는 고개를 들어서 달을 처다본다。
달은 바로 송도원 송림우에 잇다。 강물과 바다물이 합하는 곳에 물ㅅ결이일어서 특별히달빗을 반사하고 잇다。 더원뒤로 보이는 큰 산에서는 구름이피어오르고 거긔서는 우뢰소리는 업시 번개만 번쩍번쩍한다。 별들도 가끔 날아다니는 구름ㅅ속에 숨엇다 들어낫다 한다。

「무얼 그러케 생각하고 잇서 은주씨를 생각하노라고 그래?」
하고 문엽이가 물을 때에、혜련은 허공을 바라보는대로 머리를 살래살래 흔든다。
「무얼 그러치」
하고 문엽이가 다시 물을 때에、혜련은、문엽을 물끄럼이 바라보면서、
「언니! 내 한마듸 물으께 똑바로 대답하겟수?」
하면서 문엽의 팔을 끼고 것기를 시작한다。
문엽은 가슴이 좀 설렘을 느끼면서、
「무슨 말야?」
하고 혜련을 모으로 본다。
「아니 글세 똑 바로 말허지?」
하고 혜련이가 한번 더 다진다。
「글세、그게 무슨 말야? 내가 언제는혜련이 보고 거짓말햇서?」
「아니、그런게 아니지마는」
하고 혜련은 잠깐 주저하다가
「언니」
하고 퍽 정다운 음성으로 부른다。

「明惠!」
하고 문엽은、이러케 불르하는 태도로말한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얏다。
「언니、사랑하는 남자잇수!」
하면서 혜련은 오똑 서서 문엽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정석、정석」
하고 물ㅅ결이 도사리의 발뜻흘친다。
문엽도 오똑 섯다。 그리고 고개를 숙엿다。 문엽의 눈압헤는 은주가 나선다。 그러나 은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것으로 곳 단정을 나린다。 그리나 문엽은 사랑하는 사람이업다고 하기가 어려움을 깨닷는다。 그러면서도 오래 주저하는것이 불리할것을 생각하고서는 입은 고개를 들며
「내가 어듸 사랑하는 남자가 잇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잇스면 혜련이가 모를라구。 누가 나가는것을 사랑해줄 사람두 업구」
하고 가장 천연한것을 꾸민다。
「정말?」
하고 혜련이가 눈을 처든다。
「그럼、내가 언제 거짓말 햇서?」
하고 혜련은 뛰욱 서정이를만다。
혜련은 문엽을 밋는다는드시 고개를 까닥해보이고는 발끝흘질오질 모래를 파다가、
「언니、인제 만일 정혼하는사람이 잇스면 어떠컷레요?」
하고 문엽의 낫출 들여다본다。
「아이、혜련이가 왜 오늘은 이상한 소리만해? 자 인제 들어가」
하고 문엽은 발을 돌린다。
「언니」
하고 혜련은 문엽의 손을 못들어 세우면서、
「아니야、정말야、정말 날허 문엽의 의향을 물어보아달라는 이가 잇서」
하고 혜련은 한숨을 진다。
혜련은 어린때더러 그러한 청을 하던 늙은 아버지의 심정과 이런한 청을 들은 젊은 여자의 심정을 슬프게 아니 생각할수 업섯다。

電力國營案檢討

● 現物出資의 評價難

[illegible] 公益의 見[illegible] 이잇슬것인데 [illegible] 그것도 [illegible] 그우에 政府의 [illegible] 一部도 [illegible]다고보지안흘수 업다. 特히 國營의 [illegible] 이 [illegible]지못하고보면 도리혀 [illegible]가 [illegible] 지안다. [illegible]의 [illegible] 에잇지안코 사항에잇다. 日本[illegible]의 [illegible] 하야도 [illegible]의 能率低下는否 定할수업는 事實이어서 有利 한 金融는 [illegible]나 [illegible] 는[illegible]이 아닐것이다. 그러고 이 能率低下는 計數的 算出이 至難한바이나 實際問 題로서는 非常히 큰影響을가 지는것으로 國營案에 對한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이다 [illegible] 者 右와如한 方法을 [illegible]이 나는 國營에 依하지안코 [illegible] 成할수잇다고하면 조흔리라고 한다 그러고 이러한方法이 업 다고[illegible]할수는업는것으로 위 선 그方法을 比較硏究할 必 要가잇다。

×

다음은 現物出資의 評價問 題인데 政府는 大[illegible] 에 依하야 도水[illegible]、水利 [illegible]에 [illegible]한 不良資産은 適 當히 切下할것도 考慮하는모 양이다

[illegible] 現在 入分配當會社의 資産을 [illegible]대로 評價하 야 이에對하야 最高六分程度 의 [illegible]會社株券을 交付한다 고하면 配當의 差만은 當然 利益이되야 料金低下가 可能

하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반 드시[illegible]에 依한 料金低下라 고는할수업다。[illegible] 그 만치 料金이 低下될것은 當 [illegible]이어서 이것이라면 國 [illegible]이아니어도 [illegible] 命 令할수도잇슬것이다。新會社의 株式은 最高大分程度의 配當 으로는 어떠한 低率의 配當 保證은 잇서도 그市價는 額 面程度의것일것임으로 現在의 電業會社株主에게는 非常한 損 害를주거된다 이러한方法은所 有權侵害問題로 生하게되며또 一般企業界에 不安을주는事實 大한 影響을미치어 結局[illegible] 利益을 基準으로한 評價外에 는 方法이업슬것이다

【註】民間公共事業을 國家 又는 地方自治團體에서 買收 하는 境遇의例

一、[illegible] (가)[illegible]有法 (明 治三十九年 旣往三個年間平均 利益金의 二十倍

(나)地方[illegible]買收法同右

二、瓦斯事業(事業者와 各都市

와의契約、契約中의 買收條件

(가)東京 旣往五個年의 平均 株式市價 又는配當金額의 二 十倍가 高한것

(나)大阪、京都、名古屋、神戶 는 旣往三個年을 取하는데 其他 는 同一。

三、[illegible]、[illegible]과가티 各 都市와의 [illegible]契約中의 買收 契約에 依하면 平均利益金의 二十倍 又는 平均株式市價에 依하는것이만타(長崎、熊本、[illegible] 鮮、甲府)

四、[illegible]合同의 境遇 [illegible] 格과 生[illegible]의 平均을 四 分之三으로 [illegible]、但 生[illegible] 格에는 將來의 利益을[illegible]。

×

評價의際에 問題가 되는것은 原價償却과 不良資産의 問題 일것이다。[illegible]에對한 適當 한 原價償却은 事業의 健全 한 經營上必要한것은 自明의 理인데 過去에잇서서는 如何 히하엿든 이問題는 等閑히하 기쉬운것이며 批間에서 問題

삼는것도 比較的 [illegible] 다。이點에잇서서 [illegible] 의 過去에[illegible]은 決코 [illegible] 하다고할수업다。

所謂不良資産이라하는것 하면 水[illegible]이라든가 [illegible] [illegible]인데 [illegible] 는 [illegible] 에 依한 [illegible] 의損失 [illegible] 時의 經營上 政治上의 [illegible] 的[illegible]으로 [illegible]것도 잇 今日까지 行政的으로 [illegible] 여오것을 이제 [illegible] 株主와 [illegible]으로 一[illegible] 要하는것이 果然 [illegible] 法이가 도이經濟界에주는 [illegible] 響도 考慮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

償却及 不良資産問題는 그 發生의 原因을 考慮하야 그 程度에 應하야 經濟界에 [illegible] 激한 變動을 避하야 漸次 [illegible] 理할수잇는 方法은 다른데잇 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如斯한 不良資産이

朝鮮貿易膨脹에 外國航路難逢着

今年은輸出이七千萬圓豫想

神戶經由千七百萬圓

近年朝鮮의 對外國貿易은 輸入이 輸出額의 近倍를 占하고 잇다고는하나 年年膨脹하여가고 잇는것만은 朝鮮의 産業經濟界를 爲하야 極히 注目할바이다 特히 輸出面을보면 昭和四年까지는 順調로히 上昇하야 三千五百萬圓까지 達하엿다가 昭和六年에는 一千二百萬圓으로 不況의極底에 미첫다가 다시 昭和七年부터 滿洲事變과 金再禁의 影響이어 漸次好轉한것이 八年에는 五千二百萬圓 九年에는五千九百萬圓에 達하엿고 十年에는 六千四百萬圓이엇는데 今年은 七月까지가 三千八百萬圓으로 下半期까지하면 七千萬圓을 突破하리라는 觀測이다 仕向地는 滿洲國 中國을 主로 하고 그다음은 南洋 亞弗利加 其他의 諸國인데 이것은 大槪直輸出이나 其外에 神戶等地經由도 一千七百萬圓가량으로 測定되고 잇다 이가티하여 神戶經由가 되면 每噸三四十錢의 賃金이 加重되어 移出貿易에는 적지안흔 不便이 되어잇다 그래서當局과 輸出品 製造業者들은 靑島 大連 上海 航路外에는 外國航路의 開拓이 朝鮮의 對外貿易을 爲하여 緊急問題되고 잇다 그러나 아직은 出荷가 整理못된 狀態에 잇는만큼 定期航을 誘致키도 힘들어 一種의 過渡期에 잇는터인데 압흐로 對外貿易의 振興을 爲해서는 外國航路의 解決이 必要되고잇다

海東、湖南兩銀行 合同實現의 豫想

中止說은 一時的過程?

海東銀行과 湖南銀行의 合倂談이 漸次 具體化가되어간다고 함은 既報한바어니와 別項과가티 兩銀行幹部間의 折衝이 잇섯스나 評價其他의 問題로 合同談은 中止되엿다고 한다 그러라고해서 兩銀行合倂이 全然 하여會뿐이므로 目下 理財課에 某某地의 支店設置의 認可를 申請中이다

(二) 이와가티 支店網擴大에 注力하는 이때에잇서 그大株主인 取締役會長 金季洙氏는 湖南銀行 玄俊鎬와 同鄕關係 터구나 金氏家에서 湖南銀行 株를 相當히 가지고잇스므로 다른 銀行보다 合同함에 便宜가 잇슬것이다

(三) 그러고 湖南側으로서도 大勢가 地方銀行에 對한 一層統制의 氣運이 濃厚함으로 此際에 關係가 기픈 海東과 握手하야 合同하라 는것이 賢明의 策으로 펼便이 만타 그래서 兩銀行의合同談이 最近에 具體化함에 일르럿고 이미 金季洙氏가 買取까지 玄俊鎬氏에 讓步한 이때에 잇서 合同談의 中止가 事實이라고하면 이것은 技術的으로 一時的이 結局 다시 妥協을보아가지고 最終的合同의 實에 도래가리라는 觀測이 잇다

對立 等點으로 到底히 妥協키어려워 自然 合同談은 中止가 된모양이므로 結局 今後合同을 實現키 함에는 總督府의 後援的調停이 必要케될것이라는 一部의 斷見이 傳하다

白金價暴騰

東京市中五日의 白金市勢는 賣價十六圓五十錢 買價十五圓丁으로前日에比하야 一擧五十錢高이오 京城市中白金價도六日에는 賣價十七圓丁、買價十五圓五十錢에五十錢高로 昭和八年一月의 十八圓以來의 高價로躍進하얏는바 六月倫敦에서열닌 英、米、蘇三國國販賣協定成立前에比하면 二圓五十錢高를 示키에至하얏다 이는海外市勢가四十三淸로 換算十七圓七十五錢에까지暴騰되엇스며 某方面의 多量買入札(東京、大阪二店參加)이 五日施行되어 僅少한各地市中在荷가一掃되리라고보고잇다한다

在荷一掃?

中止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一) 海東은 京城에 本店이 잇고 그밧게 오즉 近年에 湊新에 支店이 一個所를 設置

配當、資産評價問題로

合同談이不進捗

海東、湖南兩銀行의合同談은 湖南銀行側取締役會長玄氏가 最近入京하야 海東銀行當事者間에 折衝이 繼續하엿스나

一、配當(湖南七分海東四分)의差

一、其他의評價에 相當한差가 잇는點

重要商品界事情

人絹生産激減

【人絹聯合會調査】七月中의加盟二十一社生産高는 合計二千一萬四千五百六十二磅으로 前月보다 四千八百의 激減을示하얏다 會社에 依하야 操業日數가 一日만이엇음에 反하야 如斯히 激減된것은 七月부터 普通絲가

百以下 [illegible]
百 三 [illegible]
百 五 [illegible]
二百以上 [illegible]
合 計 [illegible]

×

이것을 普通絲와 特殊絲로

前月比較

百以下 [illegible]
百 二 [illegible]
百 五 [illegible]
二百以上 [illegible]
合 計 [illegible]

減産된것에 起因하는바 매니 르別은 如左하다 (單位磅△印減)(七月中前月比較)

特殊絲 普通絲

別하야보면 普通絲도 八千七百餘磅의 減少에 對하야 特殊絲는 四十餘磅의 增加이다。實行과 拡算을 考慮하야 各社共히 普通絲로부터 特殊絲에 轉替生産이 有力하게 行하고잇는結果에不外하다。(△印減)

"鑛山더대採掘을 法律로써公認"

·朝鮮鑛業令改正意向

朝鮮의鑛産은 目標一億圓에到達하는 飛躍的發展이되 鑛業의增進에 伴하야 一層積極的으로助長키 爲하야 殖産局에서는 朝鮮의鑛業令을 朝鮮의特異的情勢에適合케改正하기를硏究中인바 그要點은

一、"朝鮮의特殊한것인"더대"制度를 法律로認하고 監督을 嚴重하게할것

一、鑛業權所有者에게對하야 積極的行動을 시키게할方針下에 總督府의命令으로 企業케하기를 鑛業令中에加함

一、鑛業稅報告事項의嚴重施行等이비떠며大體勢企業命令權이認定되는點이 特色 그政府에서도 愼重한態度로進行코잇다한다

新總督의 經濟政策

當面諸問題

十二年度 豫算編成을 압해두고 新總督、總監이 內外地間財政調整과 重要統制法朝鮮施行問題를 어떠케 處理할가가 注目된다

一、內外地財政調整을 外地剩餘金의 一般會計 繰入問題인데 이것은 增稅計畫에도 關聯되는것으로 大藏當局은 積極的으로 補給金一千二百萬圓이 限度로 一般이 觀測하나 이에 對하야 新首腦部는 如何한 政治的手腕을 發揮할지 如何한 程度로 內外財政이 調停될지

一、産業의 內外地統制問題는 小 府에서도 愼重한態度로進행코잇다

秋肥配合計畫

朝鮮農會州萬叺

朝鮮農會의 秋肥共同配合今年度에는 一割하야 前年倍增의 三十萬叺製造計畫을 하고잇는데各道의 參肥要求가 激增하야 申請은四十萬叺을 突破하엿다고

朝銀券縮少

今年의最低記錄

七月繰越의 朝銀券發行은 一億三千九百七十四萬四千圓으로 畢竟一億四千萬圓臺가 깨여저 今年最低記錄을 示하엿다 이것은 朝鮮經濟界가 所謂 夏枯期에드러온것을 말하는것으로 例年의 減少이나 前年同日은 一億三千六百萬圓程度의 發行高로 今年은거우三百萬圓程度의 增發이다 前年의 最低記錄은 八月十八日의 一億三千二百三十九萬圓인데 今

今年의春繭은 全朝鮮的으로 거의 出廻가 끗낫는데 製絲工場의 購繭資金準備는 아즉 最高點이 達치안코 아즉도 一割程度가 남어잇다 朝鮮銀行의春繭貸金貸出은 現在四百五、六十萬圓에 達한바 繭價가 노픈만큼 높지안코 前年보다는二、四十萬圓의增加에 不過하다 今年의貸出金利는 一、二厘가 前年보다低率이며 融資의條件으로는 實際를 勵行케한다

春繭資金의貸出

◇……比較的增加처안혀

年도 今後 다시 縮少하라고今月中旬의 終末에는 前年과 同額가량으로縮少할모양이라고한다

重統法問題

殖産局樂觀

重要産業統制法의 外地施行은 業者六十九續會에서 問題化한以來 商工省에서는 恒常外地施行을 促進하고잇는데 今次의總督、總監更迭에 當하야서도 商工省으로부터 新首腦部에對하야 右問題의 促進에 對한 折衝을開始코잇는바 殖産局에서는 如左히觀測하는

川商相이 이미 大野總監과 折衝을 開始하얏다고 傳하는때 朝鮮의 産業獨自性과 日本內地의 統制 一元化의 主張중어느點에서 一致케할지 두가지 가 興味觀되는 問題이라한다

모양이다

新總督、總監에게 商相이 折衝을開始하얏다하나 總督으로서 도 키轡를 受치안을것이상 만풀어 두는程度에 不過할것임으로 諸統制法實施를것이언다 그것도 米와如한 問題와 相異하야 말하자면리걸해 保護法입으로 統制法의 强制에 도限度가잇다 近間殖産局長이 東하야 新首腦部와 從前의經緯에 對하야 諒解를 得할 定이오 問題의 洋灰約料도 解消되엿슴으로 急히 一元統制와 如한것은 實現안될것이라고 極히 樂觀的態度를 가지고잇다

七月中의 勞銀低落

【朝銀本店調査】

七月中의 京城勞銀指數는 一七五포인트三六을示하야 前月에比하면 一포인트五〇의低落 前年同月에比하면 二五포인트九〇의 昂騰이엇는바이다

外油販賣認可

朝鮮石油會社에

朝鮮石油會社에서는 重油의 實能力을 擴充키爲하야 總督府에 外油의輸入販賣業免許를申請中이더니 最近正式으로 許可의法令이 잇섯슴으로 今時元山工場製의 重油로 供給能力不足의 境遇에는 外國重油를 輸入販賣케되엿다고한다

原油元山入港

朝鮮石油會社의 米國原油積載 第二船 飯野商事 東亞丸(一三、五〇〇噸)은 八日 케루만原油九千噸으로 重油三千噸 合計一萬二千噸을 積載하고 元山港에 入港하엿다그러고 同社의今年度 原油準備는 原油十萬噸인데 이번에輸入으로 二萬五千噸 卽四分의一輸入을 끗내엇다고한다

米日爲替强保

【經濟七日發同盟】 本日의 米日爲替는

經濟界消息

○殖銀新理事金子氏入京期=殖銀 東京駐在理事水間美禮氏는 十二日 大藏省推薦으로 內定된 新理事의 金子隆三氏와 한가지로 入京한다고。

○朝鮮鑛業會九月一日總會=朝鮮鑛業會에서는 今秋 九月一日부터 四日間 咸興演武場에서 今年度總會를열고 會議에 繼續하야 講演會 懇親會等을 열리라고

○巡回見本市中央線沿線開催=京城都實商議聯盟主催로 十一日부터 一週間 새로히 敷設할中央線沿線의 春川、原州、忠州、堤川 丹陽 榮州 安東 義城 永川의十個所에서 京城巡回見本市를 열기로되엇다고

○ 林財務局長의 實業界入이 問題되는 모양

○ 八年이나 在任한 朝鮮의 藏相格인 林局長이 一個會社로 들어간다는것은 諸般問題가아닐까?、

○ 鑛業令을 改正하야더대制度를 公認하리라고

○ 모를지이 法은 實情에 適合하여야 하는것

取引停止

(八月五日) ◆貸金業京城府鍾路四丁目二二番地洪淳福◆穀物商京城府黃金町一八三番地鄭振讓 ◆食料業京城府本町二丁目五〇番地岩井常藏◆京城府本町入口通明◆京城府太平通二蔡泰鉉◆金剛莊代表者加藤勳助

◆東京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三 買 二十九弗十六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五 買 二十九弗十六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前日과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十一仙을 一仙高、買二十九弗三十八仙으로 保合이다

商況 (八日)

株式 難伸難押 保合

前場採合 市勢는 依然動意가업서 休日氣分을主中日立會가 小口의競合으로 少幅往來이다가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二十四圓十錢 大新二十錢高인 六十八圓丁 鐘新不變인百五十九圓丁 日產三十錢高인 九十錢 日產新二十五圓五十錢 朝石三十四圓丁 拓新二十一圓五十錢 日魯七十圓丁 滿鐵六圓七十錢 滿鐵新三十九圓六十錢 十二圓丁 日魯七十圓丁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四圓丁이엇다

종작업는東新

結局은어듸로

昨今의 東新가티 종작할수업는 市勢는 드믈것이다。萬若東新의 將來가 全然暗黑한것이라면 벌서百圓臺이잇섯슬것이오 또將來가有望한것이라면 이러지도 저러치도 안코니 갈피를 잡을수업다 지도안코니 갈피를 잡을수업다 勿論妙味가업는것은아니며 百二十圓台에서 머무적거리는 동안 이오될수록 將來의硏究와 市勢의銀錬은될것으로 이業患兩面의 裁決이될터인바 한번方向이 決定만되다면 一擧相當한 市勢를期待하게될러이다。

財政膨脹에 依한 景氣上昇을 『인푸레』란말로 表現한다면 어되서던지 一齊히 好景氣가잇슬것으로 秋高期待는 去益濃厚化되는中이다

朝石株遂暴騰

朝鮮石油株는 第一回拂込前으로 拂込急進의 景氣로不勢이고 十九圓臺를 高價로하더니 八月一日拂込後는 三十二圓臺에 이엇는바 拂込完了에依하야 이것의 好感이 잇고 또十六日부터 製品이 市販되으로 今前場은短期에 三十四圓二十錢에 暴騰하는 好勢로 一擧一圓五錢高이엇스나 續騰力은 疑問視되엇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一四〇枚

◆도쿄지鑛業 一五五、◆帝國火藥 一五九◆東滿晉平 三五◆大同電力 新 一六四◆鹽水港新 一七五◆櫻田機械 三五〇◆王子紙新 三五〇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 九月下旬에 赤字公債의 發行條件이 有利해진으로 七月末發行의 旣發行債는 賣氣가생기어 內債는 處分賣가 散見되어 佛貨債十錢低、米貨六分五分半共히 一圓內外賣叩이 엇다

甲五分利 一〇一四五

今日財界 (八日)

◆米 仁川期米 大阪期米 ●三等米 正租(仁川) 一斤價 [illegible]

◆株 朝取新 東新 日產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이오 또政府案과가튼 方法으로는 現有者하는 結果를 엇지못할것이다。차라리 命令으로서 事業者로하여금 漸年償却의 方法을 取하게하는것이 가장妥當할것이다。그것은 國營에依하지안터도 可能한일이다。以上에서 말한바와가티 現狀을 國營으로하기보다는 오히려料金의 低下를 하다는 權限하고 由는 不少한것이다 그러고 그 方法에는 여러가지 無理가될 것이다。

—(계속)—

一圓四分利 一〇二五
佛貨四分利 一九八六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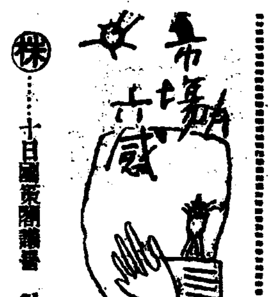
期米 三期並進 活況

前場續高 昨後場阪地三十一圓二十六錢止와共히 三十錢高인 九錢에寄來止한 當市場은 今後

趙俊鎬取引店

期 東 米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十日國策劇場… 압두고市勢는前軍低迷로一買 ◆一百卅六圓丁까지 反撥되고다시기운이적긴것은 無力하다아니할수업는노릇 ◆但大阪은 東京보다 東新人氣硬化인모양 三段反撥이잇슬법도하지만……

▲雜株의 循環買氣는 依然旺盛 ▲自體에問題가잇거는하지만 東新의 無氣力이 너무甚하다 ▲그러나이제秋高가必至라면 東新도 實時代가오고야말것

米……堂島의 有力側인田中眞一派가當中三千萬石의 大買物을 抱擁하고 連日買煽하는 바람에 當地도當中買의 소리에귀가아플지경이다 ▲何等의根據와 條件도업시덤허노코 買進하다가 買流行病에걸리지안흘지몰라 ▲日本內地는 在米에 薄으로 渡米蒐集의難이업지아니라고朝鮮은 比較的在米가潤澤한족 此에一考要함이何如 ▲今日은秋!이로부터稻作은 開花期에入하게되니 天氣의如何에딸아作戰하는것도 도한無妨할듯

不透明의商狀

最近各地市場은 堂島의 有力側 인 田中眞及鄕先一派의 過剩 化의문제여 正米의 實物如何와 稻作狀況의 如何를不拘하고 全 前記有力買方을 相當警戒한 軟 弱한 實物이 續出하야 漸新 高價를보이고잇다 仕手觀으로는 로보아서 日本內地는 稻作狀況으 로 三南의異作과 中部及西鮮一 部의 凶作을 平均하야 平年作 以上을 豫想할수잇슬뿐아니라正 米의 實情으로보더라도 日本內地市場은 渡米蒐集難의 嫌이 업지아니하야 買方主力側인 長崎一派는 當限四萬石의 遺買米를 朝鮮에까지 손을뻐치어 渡米를 蒐集하는中이며 朝鮮은 比較的在米 가潤澤하야 渡米難의 憂慮가업 을모양이며 이와가티 一軟一硬 의 材料가 交雜함으로 仕手도 自然迷宮에 入하지안흘수업스며 市勢도 도한不透明의 狀態로當 分活惠의 觀을 呈하자못할모양이다

後場奮騰

後場은 三十圓十錢에七十錢低로 始歩된後阪地高로 二十四錢新高値로 反騰에轉하야 二十八錢으로反 騰한後阪地高를 보아 十七錢의新高 値이와七錢저반여 [illegible]

當分傍觀時代

買固執도亦難

當中兩限은 先限과 달라서 正米의 實勢를 度外視하지못할것 만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諸必稀瑞境期의 品薄이라는것을 唯一한 凝材로하야 東阪兩地의 當中은 旣히 三十四圓臺로 奔騰하야 去六月中의 天井을 突破할 氣勢를 보이고잇스며 當地亦 雷動的買氣가 旺盛하야 當中의 稍漸高價를 示하는中이다。 그러나 朝鮮의 在米事情만은渡 르지안흔것이오 日本內地의 事情은 渡米難의 嫌이 업지아니 하나 그러나 換近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이 着者의 觀을 呈하는만큼 自然 그만한 威力을 加하야 渡米蒐集의 便宜를 與하게될것이며 或境遇에 依하야는政府米의拂下가잇슬지도 亦未知임으로 買固執은 後日의杞憂가아니될가한다 그러한모든點으로보아서當分傍觀하는것이 得當가아닐가한다

康益夏商店

米 仁川 京城 益 株
金益證券部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底堅

【大阪電話】期近과遠期의 新低 買로 高値上追이나 民高値示現 後는賣方의 利喰急과民待買로一 層이어던市勢는今朝高值警戒로利 有側의 利喰急으로 少幅이엇스 나 最近高로 低價買氣不衰하야 少堅이엇다

▲今前場主要賣買

賣方 木村自己 中東側 地場乘 換 地場軟派

買方 朝鮮側 地場强氣、高瀨側

各地正米

京城堅調

天候不良으로取引은 거이아되나 米商移로十錢 高唱인 ㊂三等三一圓二五錢 四等三〇圓九五錢 一等白米一三圓

仁川强含

昨今定期의朝鮮係로 阪地에賣케되는 模條이오 期米堅調를移하야 市勢十錢高唱 인 ㊂三等 三一圓二五錢 四等 三〇圓九五錢 一等白米一三圓四 一錢

釜山强含

新規實物杜切과 實需買氣旺盛으로 人氣가多少小 康回復이나 市況은 伸惱氣味이 다 ㊂三等三一圓三〇錢 四等三 一圓 一等白米一三圓五二錢

大邱同調

定期의頑强과 頭上險惡으로 投機側의 實上的態度를 不改하 고 市況은 底堅伊合인 三等三 一圓 一等白米一三圓五二錢

木浦硬化

期米의漸高步調와天候不良으로 持米側의賣腰去 益强하고 唱은二〇錢硬化이나取 引은 잘進捗되지아ᄂ하다 ㊂三等 三一圓七〇錢 四等三一圓四〇錢 一等白米一三圓

群山强堅

定期漸高에 繼續하야 實物不添이오 市况이强調이나 日本內地人往薄으로 傍 觀이다 三等三一圓六〇錢 四等 三一圓四〇錢 一等白米一三圓七 〇錢

土金 分析 賣買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一二三六番
振替京城一五一五四番

◆海外經濟◆七日 [illegible]

◆朝鮮銀行勢◆七日 [illegible]

◆日本銀行勢◆七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八日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鮮油冲價◆ [illegible]

◆鮮粕冲價◆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 八日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八日 [illegible]

◆朝取期米◆ 八日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 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八日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 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七日 [illegible]

◆시카고期麥◆ 七日 [illegible]